

# 19세기 언어철학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김 윤 한

(언어학과 부교수)

## 0. 서 론

로네상스 이후 서양에서 학문은 신학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학문적 명제는 이성적 추론에서 유도되었다. Descartes는 스콜라철학의 사변적 공론과 독단론에 반대하고 *Discours de la méthode pour bien conduire sa raison, et chercher la vérité dans les sciences; plus la dioptrique, les météores et la géométrie*(1639)에서 이성주의를 주창했다. 그의 이성주의는 17세기 중반에 특히 프랑스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모든 학문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성주의는 철학, 특히 논리학을 통해서 언어학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결과 “데카르트 철학 *Kartesianische Philosophie*”에 비유해서 “데카르트 언어학 *Kartesianische Linguistik*”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660년에 Port-Royal의 보편문법이 정립되어 50여년 동안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Port-Royal 문법학자들은 언어자료를 토대로 일반화의 원칙에 따라 언어 구조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문법체계의 보편화를 시도했는데 그들의 특성은 논리정연하고 명확하며 간결한 문체와 정확한 표현법이다. 18세기 언어학은 보편문법의 직접적인 영향하에서 전개되었다.

또 한편 보편문법학자들은 여러 언어의 문법적 형태목록과 어휘목록을 작성함으로써 표현 면에서 여러 상이한 언어의 문법적 형태와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과 언어를 표면상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결과 비교대상이 된 언어의 실제자료를 토대로 언어체계를 분석, 비교하는 비교언어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9세기에 경험주의<sup>1)</sup> 토대 위에서 자연과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모든 연구의

\*이 논문은 1944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Humboldt(1827, 114)에 의하면 언어는 인간의 정신 속에 내재하기 때문에 개념과 관계되므로 언어연구에는 순수이성적인 연구방법이 필수적이며 또 한편 개인 속에 실존함으로 경험적 연구방법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의미론적 요소는 이성적, 언어적 구성요소는 경험적 자료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의 언어연구는 종합적이다. Haym(1856, 471)은 Humboldt의 연구 방법을 “관념의 개별화와 이러한 개별화의 재관념화”라고 칭했다.

일환으로서 역사-비교언어학이 정립되었는데 그 기본원칙은 1) 역사적 연구방법론의 적용, 2) 진화로서 언어변화의 목적론적 해석, 3) 심리학과 자연과학의 범주와 방법론의 원용으로 요약된다(Cherubim 1975, 8ff). 역사-비교언어학은 고도의 개연성을 지닌 가설로서 그 목적은 1) 개별어의 비교를 통해서 인구어 공통조어를 재구하여 그 음운, 형태, 어휘 등을 기술하고, 2) 공통조어에서 어떻게 개별어가 분기되었으며 개별어의 음운, 형태, 어휘 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연구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불란서 혁명 이후 시민총의 승리로 “한 민족 한 국가”라는 낭만주의적 정치 이념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의 형성에 언어학자들의 공헌이 커졌다.<sup>2)</sup> 19세기 초기에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사물을 논리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지향하고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간주되어 등한시되었던 유기체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졌으며 유기체 역시 물리적, 화학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관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유기체는 매우 복잡다양해서 물리적이나 추상적 형식으로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적 발전의 결과로 간주되는 개체는 선형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구성요소의 관찰과 정확한 규명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만 유기체의 발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Meillet 1903~Printz 1909, 273f). 또한 그 당시 역사가들도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모방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실례로 Bernheim은 인류발전에 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역사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주장했다(Sommerfelt 1975, 178). 그 당시 언어학자들은 역사적 지식은 절대적이고 사물을 이해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이라고 믿었다. 19세기 중반기에는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의 토대가 되었던 철학적 사상 즉 낭만주의의 쇠퇴와 더불어 언어의 역사적 및 생물학적 변화에 관한 진화론적 모델이 등장했다(Amsterdamska 1987, 44) 그 당시 사상가들인 Hegel, Marx, Darwin 등은 모든 사물의 발전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Schleicher가 사물을 진화에 관한 역사를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듯이 그들에게는 역사적 연구방법만이 연구대상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단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언어연구 방법은 그 당시 성행했던 철학적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언어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연구는 Herder, Schlegel, Humboldt, Schleicher, Steinhthal, Paul, Wundt 등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주로 일반적인 언어이론의 정립이었다. 이 외에도 그들은 언어의 특성,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

2) 예를 들면 Grimm은 1874년 게르만어학자 대회에서 한 민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총체라고 했다(Maas 1973, 32ff)

설명하고 언어진화(역사적 발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sup>3)</sup>

18세기 말과 19세기 초기에 유럽문화를 주도했던 낭만주의에서는 언어, 시, 신화 또는 예술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가 중시되었다 그 결과 민족의 뿌리를 찾으려는 운동 즉 태고에 대한 신비의 실마리를 해명하려는 한 방법으로서 언어의 비교연구가 부각되었다. 또 한편으로 19세기에는 물리학의 절대적 법칙과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이 타학문의 새로운 개념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19세기 하반기의 중반에 언어학자들은 언어학을 자연과학과 동일한 정밀과학으로 정립하려고 시도했다. 언어연구에 자연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최초로 도입한 언어학자는 Schleicher<sup>4)</sup>인데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이후의 경험주의에서 비롯되었다(Robins 1973, 40).

언어를 자연과학적으로 고찰하려는 방법 외에도 Steinthal은 언어를 인간의 활동 및 창조영역과 관련지어 인류학의 한 분야로 취급하려는 경향 즉 언어의 심리적 고찰방법을 언어학에 적용했다(Arens 1955, 252). 그리고 1860년 경에는 이상적이고 절대적 의식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정신적 생활의 개인심리적 기제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개념 대신에 “개인적” 즉 개인정신적 활동의 기제가 학문적 고찰의 중심과제로 등장했다 그 결과 개인심리학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개인심리학적 연구방법이 언어학에 도입되었다 (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284).<sup>5)</sup>

Bopp의 비교문법, Grimm의 역사언어학, Schlegel의 유형론 등이 19세기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는데 이러한 세 경향은 Schleicher에 의해서 하나의 언어이론으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Twaddel 1943, 151). 젊은이문법학파의 도전을 받기는 했지만 1920년대까지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은 주로 Schleicher의 이론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실증주의적 철학사조의 테두리 안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Humboldt의 언어이론은 Saussure의 구조주의의 이론이 언어학의 신기원을 열었을 때 독일, 이태리 등에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Koerner 1972, 257).

본 논문의 집필목적은 19세기 언어철학의 주류사상이 역사-비교언어학 이론과 연구방법의 정립에 미친 영향을 분석, 비판하는 데 있다 필자는 시대정신이 언어학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역사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심리주의의 언어철학은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3)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과 관계되는 언어철학적 사조에 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4) Schleicher는 Hegel학파에 속하지만 그의 언어이론은 생물학(특히 식물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Darwin의 *The Origin of Species*(1859)는 Schleicher의 언어사 전개 및 생물학적 언어연구 모델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5) 언어분석의 기본자료로서 화자의 의식에 나타난 심리적 과정에 관한 고찰이 이러한 심리적 연구방법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끼쳤는데 그 원인은 언어의 특수성 즉 언어와 사고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 당시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언어학자가 언어라는 연구대상을 시대사상과 관련되는 명제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해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어가 사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적용하여 고찰해야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의 노력으로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다시 찾았고 언어본질에 관한 많은 부분이 밝혀졌는데 필자는 인간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언젠가는 언어의 본질이 완벽하게 해명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1. 역사주의 언어철학

수집된 다양한 언어자료와 여러 언어에 관한 기술을 토대로 18세기 중반에 유럽에서는 이미 역사-비교언어학 이론정립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 이 시기는 철학적(특히 논리학적) 연구방법에서 역사적<sup>6)</sup> 방법으로의 전환기이기도 하다 많은 언어학자들은 19세기 초기에 보편문법 등 그 당시 언어이론만으로는 언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적 방법에 의거한 새로운 언어이론의 필요성을 느꼈다. 예컨대 그들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 체계화함과 동시에 연구대상에서 언어외적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한 언어자료만을 가지고 언어의 개별적 특성과 공통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당시까지 이룩된 모든 학문적 발견과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비교언어학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미 18세기에 Brosses, Rousseau, Monboddo, Smith, Priestley, Herder 등 다수의 철학자, 문헌학자, 언어학자 등은 역사철학의 창시자인 Vico가 *Principi di una scienza nuova*(1725)에서 제시한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언어학에 원용하려고 시도했다(Amirova et al. 1975~Meier 1980, 231). 다시 말해서 역사주의의 원칙이 역사적 관점에서 언어비교 방법에, 생성과 발전의 관점에서 언어분류 방법에 도입되었다

언어의 과학적 연구방법은 역사적 방법뿐이라는 Paul의 주장은 Herder, Schlegel, Humboldt, Grimm 등 언어학자들의 이론과도 연관성이 있다. Herder(1772, 76)는 역사적 분석은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과거의 모든 언어단계에 관한 고찰은 현재의 언어 상태를 파악하는 필수적 요건이라고 주장했고 Schlegel(1808, 41) 역시 언어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강조했다. Schmeller(1827, 7f.) 또한 Adelung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상태는

6) Schleicher가 언어현상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Darwin의 진화론을 도입한 이후로 언어학에서 “역사적”이란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Grimm의 시대에는 “경험적”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철학적”이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사용되었다 (Telegdi 1967, 225-30)

과거의 상태에서 유기체의 법칙에 따라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언어의 역사적 연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와 같이 언어간의 역사적 관계를 발견하여 그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역사-비교언어학의 과제인데 그 근본목적은 인간사고의 원형을 탐구하는 데 있다.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이에 상응하여 두 언어간의 관계 특히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면 즉시 그것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하고 공통조어를 재구했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낭만주의의 팽배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식민정책을 통하여 유럽제어 외에 다른 언어와 문화에 관해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었다. 특히 산스크리트의 재발견은 역사-비교언어학 정립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는데 Jones(1786)가 주장했듯이 산스크리트는 인구어 공통조어의 음운론과 형태론상의 본질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산스크리트의 언어자료 없이는 공통조어의 문법적 분석이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언어간의 구체적 비교연구를 통해 공통조어를 재구할 수 있다는 확증은 역사-비교언어학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Pedersen 1965, 241f.). Grimm은 언어를 시간적으로 발전하는 통일체<sup>7)</sup>로 간주하고 현재의 어형을 토대로 과거나 미래의 어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역사언어학의 정립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은 Grimm의 *Deutsche Grammatik*(1819)에서 확립되었고 젊은이문법학파 시대 Paul의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1880)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Grimm의 세대와 젊은이문법학파간의 언어연구 방법의 공통성이 역사적 방법이기 때문에 19세기의 언어학을 일반적으로 역사언어학이라고 칭한다. Grimm은 *Deutsche Grammatik* 재판<sup>8)</sup>의 서문에서 문법에 관한 일반논리적 연구방법은 개념을 명확히 규정은 하지만 언어정신에 대한 고찰을 배제하기 때문에 논리적 방법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피력했다. Pott<sup>9)</sup> (1833-36, xii)는 Grimm의 게르만어 음운변화에 관한 역사적 설명방법 그 자체가 철학적 연구방법보다 더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역사적 연구방법의 우위성을 강조했는데 Grimm이 주창한 다음의 두 경험적 원칙은 그 당시 언어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Jankowsky 1972, 77f.)

- 1) 모국어<sup>10)</sup> 그 자체가 민족특유의 정신생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서

7) Humboldt는 원래 언어를 “생성되어진 것 *Gewordenes*”으로 정의했지만 또 한편 “생성되어질 것 *Werdendes*”으로 간주했는데 이것은 그의 언어에 관한 역사적 접근방법을 뜻한다

8) Grimm은 1818년에 발표된 Rask의 고대 북구어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즉시 *Deutsche Grammatik*의 작업을 중단하고 1822년에 이미 출판된 재판의 개정판을 출간했다. Grimm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음운법칙을 공식화(도식화)했는데 그의 연구결과는 언어자료의 정확한 관찰을 통해 이룩된 것이다

9) Pott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어학의 개별적 연구분야에 관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10) Grimm은 모국어를 중시했기 때문에 언어능력의 자유스런 발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모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했다 그에 의하면 모국어의 능력은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것인지 가르쳐야하는 사항이 아니다.

고전어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2) 몇 세기 동안 고전어 연구에서 축적된 문헌학적 연구방법은 모국어 연구에 적용되어야 한다 문헌학적 방법 즉 텍스트비판, 문법적 및 의미론적 해석도 역사적 발전의 관점에서 언어설명에 원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발전과정에 관한 이해가 바로 언어본질에 관한 파악을 위한 최적의 판단기준이기 때문이다.

Grimm은 원칙적으로 세 종류의 언어연구 방법 즉 철학적, 비판적 그리고 역사적 방법을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인정했지만 그중 역사적 방법을 가장 중시했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적 발전을 도와서 한 기능체계로서 현존하는 언어의 문법을 인정했지만 과학적인 연구 대상으로서는 부인했다. 그에게는 과거의 언어는 낡은 고물에 불과했다. 언어 그 자체에 대해서 표현되는 공통적 유대관계는 음성적 유사성이 아니라 역사, 전통 그리고 사고의 공통성과 유사성에 의거해서 유지된다.

Grimm의 시대에 음성적 범주는 언어의 본질적 연구대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sup>11)</sup> 그 이유는 Humboldt의 작품 *Ergon* - 작용 *Energeia*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작품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Grimm이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가 음성으로 표현된 언어의 파생물이라는 사실을 이해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경험을 중시하는 언어학자로서 녹음된 음성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문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언어의 역사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음성으로 표현된 언어)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기에는 5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또 한편 그는 미래의 언어변화 경향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는데 이러한 추정은 음운변화가 규칙적이고 의미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성환경에 의해서 야기된다 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음성과 의미가 분리된 현상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면 그의 주장이 언어철학과 역사언어학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ibid.* 81).

위에서 언급했듯이 언어에 관한 연구를 역사적 방법으로 수행함으로 19세기의 언어학을 역사언어학이라고 지칭하며 역사언어학은 합리주의적 테두리 안에서 순수한 이론과 연역적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경험과 언어기술의 귀납적 방법에 기초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비역사적, 기술적 방법 즉 합리주의적, 논리적 원칙에서 유도된 언어의 상태기술을 지양하고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토대로 언어상태에 관한 설명이 언어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사회적 조직이나 제도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 즉 역사적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모르면 본질도 규명될 수 없다. 따라서 언어에 관한 설명은 선형적으로 주

---

11) Grimm의 *Deutsche Grammatik* I의 초판에는 음성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진 것이 아니고 그 구성요소의 연속적인 역사상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Paul(1975, 21)이 역사적 발전과정을 모르는 언어를 완벽하게 고찰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다. 그는 언어학을 역사과학으로 간주하고 특히 언어사를 중시했지만 언어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개별어의 현재 언어상태를 우선 공시적으로 기술해야함을 강조했다.

역사언어학은 비교언어학보다 후에 정립되었으며 초기 비교언어학자들은 비교방법의 발전이 역사언어학의 연구결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초반에는 역사언어학과 비교언어학이 한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두 분야 모두 큰 발전을 보지 못했다. Grimm 이후부터 언어연구의 목적을 특정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작업에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어분석 방법은 짧은이문법학파에서 비롯되었고 그 후부터 언어학은 언어학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하게 되었다.

언어이론에 관한 새로운 인식은 19세기 말기에 개별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나 재구에 대한 관심을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일반원칙을 추출하려는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Cherubim 1975, 20f.). Paul(1975, 4)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일반적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면 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에서 아무런 연구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방법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의 기본원칙은 모든 역사과학<sup>12)</sup>의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사례를 기술하고 법칙화하는 학문을 필요로 한다(Schmid-Neuhaus 1978, 143). Paul(1975, 1)은 언어학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회과학인 동시에 문화과학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과학과 같이 역사적 고찰의 연구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는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역사적 고찰만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대상물의 일반적 생활조건에 관해서 연구하고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항존하는 요소의 본질과 작용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원리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컨대 그는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연구를 위해서 필수적인 메타이론으로서 원리론을 정립하는 데 그 당시 언어연구의 기본 원칙인 역사적 연구방법을 원용했다.

로만스어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연구방법론의 확립에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Diez는 *Grammatik der romanischen Sprachen*(1936-43)에서 문현상으로 이미 고증된 라틴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규명하여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방법의 모델로 제시했다.<sup>13)</sup> 이러한

12) 그 당시 학문분류법에 따르면 역사과학은 일반법칙과학 *nomologische Wissenschaft*과 대비를 이룬다

13) Hall, Jr (1972, 26)는 로만스어의 재구과정에서 짧은이문법학자들이 별표를 붙인 재구형을 남용하고 음운변화, 유추현상, 차용 등 역사적 사실을 무시했다고 그들의 연구방법을 비판했다

경우와 같이 문현이 존재하는 언어에서는 역사적인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언어변화<sup>14)</sup>의 시기와 장소를 비교적 명료하게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어와 같이 문현부재의 경우에는 음운의 대응관계만이 유일한 연구대상이 된다(Meillet 1903 ~ Printz 1909, 16).

Paul은 언어를 유기체로 간주한 Schleicher의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부인하고 역사적 연구방법을 체계화했다. 그에 의하면 언어학은 자연과학적인 고찰의 대상이 아니고 역사적 고찰의 대상이다 그는 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 외에 어떤 다른 방법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역사적이 아니면서도 과학적인 언어의 연구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관찰자의 실수나 불충분한 연구자료에서 유래된 불완전한 방법일 뿐이라고 역사적 방법의 절대성을 강조했다(Paul 1975, 20). 그에 의하면 단순한 개별적인 사실의 확증을 넘어서 그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현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바로 역사적 방법이다. 그가 주장한 언어의 역사적 연구란 언어자료를 시대순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아니고 언어현상의 인과관계 및 언어발생에 관한 연구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서 언어사실은 전단계의 언어현상이 역사적 발전과정 즉 규칙적인 변화를 통해서 생성된 결과로 해석된다<sup>15)</sup>

Paul은 언어연구에서 언어변화를 가장 중시했는데 언어변화는 발화행위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언어연구의 대상은 모든 개인상호간 언어행위의 총화로 확대된다. 따라서 그의 언어활동에 관한 개념은 언어행위의 순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정의 개인방언, 방언과 표준어의 실제적 역사성은 구체적이고 공간과 시간상으로 국한되는 언어사용자의 소속을 고려한다면 필연적으로 단순한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확증의 한계를 넘어서 비교와 분류의 특성을 지닌다.

Paul이 역사적 연구방법에 우위성을 둔 깊은 언어의 구조와 기능은 그 발전과정에서 생성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가 주장하는 언어학에서의 역사성은 물론 외적인 역사와는 무관하며 Pott가 언급했듯이 그와 반대인 내적인 역사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Paul은 언어학에서 역사성이란 생물학에서와 같은 단순한 자연의 역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상호교신을 통해서만 개인의 언어가 생성되며 어원은 언어형성에 필요한 요인이 개인의 물리적, 정신적 성향에 영향을 주는 범위내에서만 고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상호교신의 성향에 비하면 종속적 요

14) 물론 음운법칙의 개념은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사용되는 법칙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언어학에서의 법칙이란 어떤 특정의 조건하에서 무엇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뜻하지 않고 일련의 특정한 역사적 현상 안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15) 언어변화를 음운변화를 근간으로 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특히 중시된다.

인에 불과하다(*ibid.* 59). 그러나 그는 통일된 분류체계내에서 언어상태(Kandler 1954)나 구조의 역사적 해석과 무관한 언어분석의 가능성(Coseriu 1958)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언어학을 단순히 언어사로 파악하였다. 그는 또한 언어의 역사적 연구의 필수조건으로 인식론상으로 우선적인 언어상태의 기술이 기술문법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언어생활(언어변화)의 본질을 영속적인 언어변화<sup>16)</sup>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기술문법에 관해서 만족할 정도의 이론을 전개하지 않았다(Schmid-Neuhaus 1978, 149). 그의 이러한 견해가 바로 그와 현대언어학과의 공통점인 동시에 또한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Paul이 언어의 상이한 발전단계를 기술하고 또 기술된 단계를 비교함으로써 언어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대체로 어떤 규칙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기술문법(공시언어학)을 역사언어학(통시언어학)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언어사실을 추상화한 두 언어단계의 비교를 통해서 언어변화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그의 경험주의적이고 자료중심의 언어연구는 언어변화의 일반적 규칙을 형식화하기 위해서 언어사실을 추상화할 수 없다는 제약을 받는다(Koerner 1973, 109).

Paul은 전통적 언어이론과 연구방법의 불투명성을 지양하고 미래 역사적 연구(언어변화)의 이론적 토대를 이룩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언어과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그의 언어이론을 명백히 제시했다. 언어는 문화의 산물로서 변화를 중시하는 역사적 연구방법의 고찰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연구방법은 또한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의 일반적 조건을 설명하는 이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론을 원리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사과학과 법칙과학의 중간에 위치한다. 예컨대 그의 원리론<sup>17)</sup>은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존하는 요인의 본질과 작용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그는 언어외적 요인이지만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언어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는 이러한 법칙과학 *Gesetzeswissenschaft*을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경험과학과 구별하여 *nomologische Wissenschaft* (법칙과학)라고 불렀다(Maas 1973, 66f.).

전통적인 역사언어학에서는 언어의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일적인 언어이론으로 정립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에 대응하여 개념규정이나 이론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대상만을 토대로 하여 이룩되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통일성이 없다(Heeschen 1972, 18). 여러 상이한 계층에서 야기되는 변화를 서로 다른 원칙에 의거하

16) Paul은 언어변화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17) Paul은 언어철학이라는 명칭은 너무 비실증주의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을 원리론 "Prinzipienwissenschaft"이라고 칭했다.

여 표현하거나 해명하려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언어변화 이론보다는 우선적으로 언어변화에 관한 이론을 포괄하는 일반언어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물론 모든 종류의 언어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용납될 수 있는 언어이론은 적어도 왜 언어가 변화하는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도 결코 명백한 것은 아니다. 혼존하는 언어이론은 통시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정이 불가피하며 어떤 이론은 부적합하다 현재 언어학은 과거처럼 사고를 토대로 추론된 언어이론을 또 다른 사고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대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새로운 언어이론은 그 동안 알려진 언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립되어야 한다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서의 통시언어학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의 언어이론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지 이론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Boretzky 1977, 40-43)

1) 언어이론은 언어변화의 결과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형태를 수집하는 데에만 제한되어야 하며 그 언어변화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안된다. 역사기술언어학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하고 화용론적, 사회언어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사실과 거의 일치하는 언어변화의 양상을 포괄하는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변이형을 포함하는 모든 언어요소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으로 가능한 언어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용론적, 사회언어학적 요인이 어형의 선택에 관한 원인을 설명해주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어형 가운데 어느 것이 전파되고 어느 것이 소멸되는지를 알 수 있다<sup>18)</sup>

언어구조에 관한 가설과 언어변화의 종류와 방법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 없이 언어기술 장치만을 전체로 하는 간단한 사고형식에 의거해서 성립된 이론은 아무 것도 설명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데 이것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외로 한다

2) 언어이론은 언어가 화자에 의하여 어떻게 표현되고 항상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요소가 인간의 두뇌 속에 조직화된 형태로 저장되었으므로 화자가 언제나 일정하게 그것을 구사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개인의 언어수행은 비록 언어변화를 발견하기 위한 직접적인 연구대상이지만 언어수행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의 조음장소를 알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언어수행이 발화된 단어의 반사형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어형을 처음으로 발화한 사람은 누구나 다 언어의 내적 표현을 약간 변화시킨다. 화자는 청취된 어형을 앵무새와 같은 방법으로 재생하

18) 엄격히 말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주의 언어이론의 도입이 요구된다.

지는 않고 이미 존재하는 언어요소의 영향을 받고 재현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과정은 단순한 구조주의의 모델로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언어변화가 야기된 조음장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는 심리적 관찰을 통하여 알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종류의 관찰에서는 언어체계와 기능에 관한 현재의 개념이 이미 알려진 변화과정의 현상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모순점이 제거되었다면 왜 언어가 영속적으로 변화하는가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언어요소의 변화 또는 일반적인 언어변화의 방향에 관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사실상 언어변화의 원인에 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할 수 없다.

3) 언어이론은 언어의 특성간에 존재하는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언어변화의 경향을 유도해 내는 일련의 법칙과 같은 가설을 내포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 사이에는 일정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미루어 보건대 언어가 임의의 형태로 변화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연관관계에 관한 명제가 옳다면 일반적인 언어변화에 관한 공언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명을 해 주고 한 걸음 나아가 예언까지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이전의 구조와 언어특성의 상호 종속관계에 관한 가설을 토대로 모든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시되는 과정은 물론 필수적이거나 유일한 것은 아니고 동일한 결과를 가지는 예컨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진 균형을 다시 찾는 가능한 과정중의 하나이다

Zipf(1965)가 주장한 이러한 이론은 언어에 관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지식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이 방면에 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통시언어학은 경험과학이며 그 연구대상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특정의 제한을 받는다.<sup>20)</sup> 경험과학의 경우라도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연구대상에 관한 지식만이 유효하고 언어기술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세부적 사항도 제외될 수 없다고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자료가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가설은 물론이고 추상화와 이상화의 과정도 또한 설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추상화의 과정이 없이는 개념규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명칭에서 보듯이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의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는 역사적 연구방법론이다 이 방법과 더불어 합리주의에서 비롯된 이론중심과 연역적 언어연구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경험적 사실(언어자료)중심과 언어기술의 귀납적 방법의 우위성이 인정되었다. 이 사실은 또 한편 비역사적이고 기술적인 전통언어학 연구방법의 퇴조를 의미한다. 그 결과 합리주의적이고 논리적 원칙에서 유도되었던 언어상태의 기술보다 경험적 방법으

19) 최근 특히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관한 일련의 언어심리학적 테스트가 실시되었는데 소수의 경우에는 변형생성문법의 가설을 부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20) Lachmann의 법칙을 변형생성문법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Strunk(1976, 19ff.)의 비판을 참조하라.

로 공통조어의 재구와 언어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언어상태를 설명하려는 방법이 우위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언어상태의 기술은 언어변화를 해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격하되었다

최근 언어의 역사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언어변화, 언어내적인 이질성과 개별 어간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괄목할 만한 사실이다

## 2. 낭만주의 언어철학

Jones(1786)의 산스크리트 재발견 이후 그것에 관한 언어학적 관심과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심은 Schlegel(1808)에 의해서 한층 더 고조되었다. Herder, Goethe 등 독일의 지성인을 중심으로 발전된 낭만주의 사상의 팽배로 공통조어 재구와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민족국가 및 문화의 형성과 발달과정,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한편 그러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명이 모색되었다.

인간정신 활동의 발전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낭만주의자들은 가장 오래된 문헌과 언어단계에 관한 연구를 중시했다 그들은 한 민족의 언어를 그 민족정신의 발로로 간주했기 때문에 언어, 시, 민족과 역사 등에 대한 낭만주의 사상은 그 당시 문화는 물론이지만 초기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up>21)</sup>

가장 오래된 언어단계에 관한 연구가 역사-비교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중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구어 개별어간의 친족관계, 공통조어 재구와 언어변화에 대한 문제가 언어연구의 핵심과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스크리트는 인구어 공통조어와 형태론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Herder, Schlegel, Humboldt는 모든 민족의 이상과 노력은 문화적, 정신적, 지적 그리고 정치적 이상 예컨대 보편주의 이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또 한 Schlegel에 의하면 어느 민족이나 발전도상에서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의 외적 식별을 포기하지 않고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성과 완벽성을 추구할 때 비로소 그 민족의 특성을 쟁취한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역사와 문학은 물론이고 언어학에 있어서도 민족정신<sup>22)</sup>, 국민정신, 일반정신, 민족적 언어정신 등에 관한 논쟁이 특히 Herder, Grimm, Humboldt에 의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민족주의,

21) 그 당시 유명한 낭만주의자로서 철학과 언어학에서 Herder, 문학에서 Novalis와 Tieck, 문헌학에서 Fr. Schlegel, 문학사와 문헌학에서 A. Schlegel, 언어학과 문헌학에서 Grimm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고전시대에서 그들의 이상과 송고함을 찾았다

22) 민족정신이란 Herder에 의해서 역사철학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민족정신, 민족문학 등의 개념이 특히 중시되었고 언어유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사고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상응하여 Herder와 Humboldt는 언어와 시 그리고 국가를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통일체로 보았고 언어체계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이지만 표현방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특성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285)

Herder는 낭만주의의 선구자로서 Schlegel과 더불어 초기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 Herder는 언어의 기원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Abhandlung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1772)<sup>23)</sup>에서 언어를 인간의 창조물로 간주함으로써 Hamann의 개념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또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Herder에 의하면 언어는 신의 창조물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최상의 논리적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sup>24)</sup> 그렇다고 언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물론 아니다. 언어는 임의적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속성의 표현이다. Herder는 Aristoteles이래로 철학자들이 주장한 사고의 우월성을 부인하고 언어와 사고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언어가 인간사고의 도구이고 내용이며 또한 형태라고 믿었다. 언어와 사고가 상호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타민족의 사고유형과 문학은 오로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해될 수 밖에 없다(Robins 1967, 151f.). Herder는 운문을 특히 중요시했는데 그에게 운문은 인간성장과 발전의 증거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사고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서 사고의 구체화와 발전 그리고 사고의 표현을 위한 도구로서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언어를 창조한 후에 운문을 창작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sup>25)</sup> 또 한편 그는 언어가 전인류를 결합시키는 힘이며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인류전체를 통합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Herder는 언어를 일차적으로 인간정신적 표현(자연적인 속성으로서)의 자연적 도구로서 그리고 인간이성의 발로로서 파악했다. 그에 의하면 자연은 본래 인간에게 언어능력과 그 반사현상인 사고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본성)은 우선적으로 본능의 허약함에 있는데 이러한 본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은 지성과 이성을 더욱 발전시켰다. 본능과 자극의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인간의 이성과 의식 또는 사고의 근원이 되고 또한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승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극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인간은 관찰하고 사유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인간

23) Herder의 논문은 많은 감탄사를 사용한 감상적인 동시에 지적이고 문체상으로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물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언어의 기원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론은 그 당시 언어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Jankowsky 1972, 37)

24) Süssmilch는 1754년에 언어의 복잡성과 완벽함을 고려한다면 언어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25) Vico는 언어와 운문은 동시에 생성되었다는 가정 하에 언어를 조형미학적 범주로 취급했다

은 어떤 사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분별하여 이것을 본질로 인정하고 그것에 명칭을 부여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언어를 발견했고 또 한편 인간은 자연적 도구로서 언어를 소유할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Herder는 인간이 언어를 생득적으로 즉 자연적 유산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조직의 특수한 생성물로서 언어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을 사고나 의식의 특성이 아니고 자극의 강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간주했다 그의 언어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이론은 철학, 심리학, 문헌학 및 언어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286f.).

낭만주의 시대의 문헌학과 언어학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는 Schlegel인데 그는 *Geschichte der Poesie der Griechen und Römer*(1798)에서 문헌학의 최종목표가 역사라면 역사적 성향을 띤 문헌학은 철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비교언어학 초기단계에 도입된 “언어학의 철학적 시대”라는 표현이 이해되어야 한다 (ibid. 287). 그는 *Über die Sprache und Weisheit der Indier*(1808)에서 역사-비교언어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sup>26)</sup> 그 당시 문헌학과 언어학을 대표하는 학자인데 특히 19세기 초기 비교언어학자들의 언어관 형성에 크게 공헌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낭만주의자들의 연구대상은 요약컨대 언어의 존재론과 변화에 관한 개념설정이었는데 그들은 선정된 주제를 그들의 고유한 언어연구 방법으로 체계화했다. Jones, Schlegel 등이 이미 인구어의 친족관계를 논의한 바 있지만 인구어 개별어간의 친족관계 정도는 Bopp의 *Über das Conjugationssystem der Sanskritsprache in Vergleichung mit jenem der griechischen, lateinischen, persischen und germanischen Sprachen*(1816)에서 규명되었다. 다시 말해서 Bopp에 의해서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이 정립되었으며 그의 연구목적은 원시시대의 변형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언어를 통해서 인간사고의 원형을 발견하는 데 있다<sup>27)</sup> 그러나 그는 공통조어 재구는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작업은 Schleicher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Grimm 또한 *Deutsche Grammatik*(1819)에서 게르만학을 정립했다 그는 게르만어 방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견하듯이 게르만어의 공통조어를 재구했다. 그는 낭만주의에 도취되고 독일민족주의에 심취하여 지구상에 어느 민족도 독일어와 같은 역사를 지닌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없다고 주장했다 낭만주의자들에게 태고의

26) 언어의 체계를 비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Schlegel이 비교문법 *vergleichende Grammatik*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언어의 비교방법은 문헌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그 기본원리는 텍스트비판의 원칙과 동일하다

27) Bopp의 궁극적 목적은 공통조어 재구가 아니고 형태분석을 통하여 문법적 변화 즉 형태변화의 기원을 찾는 데 있었다.

언어에 대한 추구는 곧 원시민족과 그 생활방식의 추구를 의미한다 그의 낭만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원시민족(특히 게르만 원시민족)은 원초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정신적으로 미화된 선조들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총체적 개념이다

### 3. 자연주의 언어철학

19세기 초기에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대두되어 사물을 논리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고대 희랍인들에 의해서 이미 시도되었고 15세기 이래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과정의 관찰과 연구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연의 작용과 영향에 관해서 많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등한시되었던 유기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sup>28)</sup>

언어를 자연과학의 연구대상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은 Schlegel, Humboldt, Bopp, Grimm 등 초기 비교언어학자들의 유기체이론에서 비롯된다. 비교문법이라는 명칭에서도 비교해부학과의 관련성이 연상되듯이 Schlegel은 그 당시 발전된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언어현상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확증하기 위해서 언어학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 적용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Jankowsky 1972, 53f.). Humboldt와 Bopp는 “유기체”라는, Bopp는 언어의 “기계적” 또는 “물리적” 법칙이라는 용어를 언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물론 Bopp가 말한 법칙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제정한 윤리적 또는 법적인 규제가 아니고 자연유기체로서 언어의 내재적 특성을 의미한다. 인구어가 하나의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었다는 Bopp의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물리적 법칙과 기계적 법칙에 근거를 두는데 전자는 짧은이문법학파의 음운법칙과 일치되며 후자는 모음과 음절간의 관계를 일컫는다.<sup>29)</sup> 그의 기계적 법칙은 뉴톤의 중력법칙을 언어의 형태목록에 적용한 것인데 그는 강세된 어조 다음에 비강세의 인칭어미가 첨가되는 현상을 중력(기계적)법칙으로 설명했다.<sup>30)</sup> 이와 같이 Bopp가 언어의 내용보다 형태연구에 치중한 까닭은 언어현상에서 규칙성을 추출해내기 위해서였다(ibid. 57ff.).

한편 비교해부학이 Bopp의 언어이론 정립에 영향을 주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해부학은 Linnaeus에 의해서 18세기에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그의 생물분류 방법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Cuvier는 *Recherches sur les ossemens fossiles de quadrupèdes*(1812)의 서문

28) 유기체이론은 새로운 연구방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유기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간 자신의 유기체를 자연현상과 같이 직접 관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29) Bopp의 이론에는 짧은이문법학파의 음운법칙이 예견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Schlegel의 자연유기체로서 신비스런 언어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30) Bopp의 후계자들은 중력법칙을 액센트에 의해서 설명했다

에서 모든 유기체는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형성하고 그 부분들은 내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한 부분의 형태가 변경되면 나머지 다른 부분도 이에 대응하는 변화를 일으킨다고 확언했다.<sup>31)</sup> 그의 이러한 주장이 언어학자들의 언어구조에 관한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Grimm의 법칙에서 보듯이 파열음체계의 어느 한 요소 예를 들면 p가 변화를 일으킨다면 t와 k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한다. Cuvier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의 뼈종 어느 하나만 발견되어도 그 새의 전체구조를 재구할 수 있다고 했다. Schleicher는 그의 체계에 관한 확고한 개념을 수용하여 공통조어 재구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 Lyell의 *Principles of geology*(1830-33)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전단계 언어 변화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19세기 비교언어학자들에게 방법론상의 원리를 제공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Bopp는 해부학의 비교방법을 동사의 형태분석에 적용해서 산스크리트 동사의 어미변화 체계를 회립어, 라틴어, 이란어와 게르만어의 동사체계와 비교했다. 예컨대 그는 동사의 문법범주에 나타나는 태, 시제, 서법, 수와 인칭을 분석, 비교했는데<sup>32)</sup> 이러한 동사의 특징적인 항목은 꽃의 꽃밥, 약, 암술 등 상이한 조직의 특징을 비교하듯이 서로 비교하면 그 연관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Bopp는 형태분석 과정에서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체계개념을 대단히 중시했으며 형태분석을 통해서 비교방법을 정립했다. Grimm은 비교방법을 한층 더 발전시켜 Rask가 발견한 게르만어의 음운대응 관계를 체계화했다(Lehmann 1993, 24f.)

초기에는 자연과학의 용어가 언어학에 차용되었고 법칙개념이 막연히 도입되었을 뿐 연구방법론상으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언어학에서 과학주의 Szientismus<sup>33)</sup>는

31) Linnaeus는 특징적인 항목을 선택하여 생물의 종과 속을 감별함으로써 생물학적 분류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Cuvier는 동일한 방법을 화석의 연구에 적용했다.

32) 이러한 문법범주는 이미 인도의 문법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33)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의 방법론상의 특징은 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학주의라고 지칭된다. 그러나 과학주의란 어느 한 분야의 학문에서 발견된 법칙성을 다른 학문에 적용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실증주의와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실증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실증주의적 방법이 적용되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실증주의를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인식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경험적 방법과 혼동하고 있다.

실증주의의 주창자인 Comte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언어의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실증주의적 방법과 동일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는 사물에 관한 모든 지식을 관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연구방법을 실증주의 연구방법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그가 의미하는 관찰을 통해서는 사물의 본질, 그 존재형태 또는 존재에 관해서 아무것도 언명할 수 없다. 그는 이러한 그에 대한 비판적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관찰을 통해서 대상간의 일정한 관계를 기술하는 법칙을 유도해 낼 것을 주장했다. 그에게 법칙은 종속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가능한 한 다수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학자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Hegel과 Darwin의 신봉자인 Schleicher<sup>34)</sup> 시대에 절정을 이룬다. 확정된 사실을 체계화하고 일반적 법칙을 유도해 내는 데 천부적 자질을 지닌 Schleicher에 의해서 자연유기체로서 언어는 하나의 체계로 정의되었다(Arens 1955, 205). Schleicher는 처음에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나 점차로 음의 생성 즉 음에 관한 생리학적 고찰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언어사용자인 인간 자체에 관한 연구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조음작용과 유관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졌다.

일반언어학자로서 Schleicher의 자연주의 언어철학사상은 *Die Darwinsche Theorie und die Sprachwissenschaft*(1863)와 *Über die Bedeutung der Sprache für die Naturgeschichte des Menschen*(1865)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sup>35)</sup> 그는 Darwin의 자연선택설을 수정없이 언어학에 그대로 적용했고 그 실례로서 인구어를 들었다. 현재 인구어 사용자는 점차로 증가되며 그 결과 다른 언어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다. 그에 의하면 역사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은 인간의 의지가 연구대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있다 전자에서는 주관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후자에서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법칙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언어학의 연구방법은 자연과학의 방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연구결과도 정신과학의 경우에서보다 객관적이고 완벽하다. 그는 정밀과학으로서 언어학을 역사과학인 문헌학과 엄격하게 구분했고<sup>36)</sup> 언어학자를 실용적이고 미학적인 관점에서 가지는 가치와는 관계없이 모든 식물의 조직, 형성 및 발전법칙을 연구하는 식물학자에 비유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2f.)

Müller(1861-64) 역시 Schleicher와 유사한 견해를 표명했다. Müller에 의하면 문헌학은 문학작품 연구에 공헌하는 반면에 언어학(그의 용어로는 비교문헌학)은 자연과학에 속하며 언어학자들의 유일한 연구대상은 언어다 따라서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구어체 또는 방언도 그들의 연구대상이 된다. 그는 과학적인 고찰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Homer의 고전보다 문헌이 없는 방언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chleicher도 아메리카의 인디언어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현장실습을 통해 *Handbuch der litauischen Sprache*(1857)를 집필했다.

그는 이러한 법칙은 주관적으로 무엇을 침가하지도 않고 또 간주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완벽한 의미에서 신실증주의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현세기의 철학과 다른 학문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통시언어학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듯하다(Boretzky 1977, 30f.)

34) Schleicher는 언제나 정확성, 보편성과 명확성을 작업원칙으로 여겼으며 임종시에서도 자기 자신은 명확성을 위해서 일생동안 노력했지만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35) Schleicher는 언어학을 경험과학으로 정의함으로써 언어학에서 철학적인 요인을 제거했다

36) 그러나 Schleicher는 객관적인 법칙과 인간의 의지 즉 주관이 작용하는 영역인 통사론은 두 분야를 공유한다고 했다

Schleicher는 자연과학에서 차용된 개념인 형태론을 유기체의 부분을 형성하는 요소의 내적 조직의 학문으로 발전시켜 언어학에 적용했다. 그의 형태론은 단어의 가분성과 기능상으로 규정된 형태에서 유도된 단어의 형식적 특성에 기초한다. 그는 자연과학을 본보기로 하여 언어형태는 언어연속체의 일부분으로서 현재의 형태는 물론 미래의 발전될 형태에 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주의철학의 개념인 유기체이론을 언어학에 원용했는데 이러한 유기체는 균등하고 합목적적인 내적 조직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객관적 법칙에 의해서 발전한다.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요인 즉 음운변화의 규칙성, 언어형태 조직의 특수성과 체계적인 언어연구 방법은 Schleicher에게 다음의 사항을 상호관련지역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258f.)

- 1) 언어진화의 법칙성에 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로서 언어재구의 엄격한 과정
- 2) 그 자체가 복잡하나 조화되어 있고 합목적적인 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완전한 총체로서 개별언어의 기술방법
- 3) 언어체계(언어적 유기체) 그 자체가 다른 유사한(또는 계통적으로 일치하는) 체계와 음운변화, 음운대응(음운법칙), 문법적 대응관계(형태론) 및 체계적인 어휘상의 유사성(어원체계)에 의해서 연관되는 완전한 총체로서 언어공동체(또는 어족)의 자연사적인 양상.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Schleicher는 언어학을 정밀과학으로 정립하고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방법의 테두리내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언어자료의 분석을 중시했다. 그는 언어자료에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어떤 특성이나 현상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그는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언어행위의 물질적 토대로서 객관적 고찰이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다.

Schleicher에 의하면 언어는 음(물질)으로 형성된 자연유기체이며 생물과 마찬가지로 종, 속 등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성장, 쇠퇴한다. 인간이 자기의 육체를 자의적으로 변형할 수 없듯이 인간의 의지로 언어를 변화시킬 수 없다. 부언하면 언어변화는 객관적이며 자연법칙과 같이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그는 자연과학으로서 언어학을 기존의 언어학 Sprachwissenschaft과 구별하여 Glottik(언어학)이라고 지칭했다 (Schleicher 1873, 6f.). 언어학에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물론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과학적 고찰이란 언어사실의 관찰, 기록, 분류와 엄격한 객관적 평가 등을 뜻하며 현대언어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일컫는다. 그는 소수의 인구어 개별언어는 2000년도 넘는 오래된 문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생물학자들보다 더 용이하게 언어변화의 과정을 추적하고 새로운 어형의 출처를 확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chleicher는 언어변화 과정만을 연구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인간언어의 생성과 발전

에 관한 일반적 법칙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도 단세포에서 유기체가 형성되는 것과 같이 가장 단순한 어형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언어에는 동사, 명사, 어미변화는 물론이며 문법형태를 표시하는 어떤 특별한 음성적 표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만 명사, 동사 등의 기능을 가진 언어세포로서 어근이 존재했을 뿐이다. 그는 하나의 단순한 어근으로 구성된 무수한 동일형태의 원시어 *Ursprache*가 지구상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원시어는 인간의 상이한 자연적인 생활조건에 따라 발화된 음성자료나 표현된 내용이 서로 다르게 발전했다. 그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타민족의 언어보다 인접한 타민족의 언어가 자국어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5).

Schleicher의 자연주의철학적 언어관은 1) 언어진화의 2 단계설, 2) 수형계통설, 3) 유형론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언어진화의 2 단계설

Schleicher의 언어진화론은 자연과학은 물론이지만 Hegel의 진화가설에 기초한다 Hegel의 영향은 특히 Schleicher의 언어발전을 역사적 과정으로 취급하는 언어진화의 2 단계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sup>37)</sup> 인간의 정신은 유사이전에 이미 발전했으며 인간의 언어도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발전했다는 Hegel의 가설을 토대로 Schleicher(1848, I.2)는 인간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언어는 인간의 정신과 상이한 발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유기체법칙에 따르고 언어형성과 역사형성은 상호 배제하는 인간의 정신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Hegel의 진화가설에 따라 인구어의 발전과정을 유사이전과 유사시대로 구분하고 산스크리트, 희랍어, 라틴어의 고전시대를 인구어의 구조상 가장 발전했던 시기로 보았다.<sup>38)</sup>

Schleicher에 의하면 유사이전 시대에 모든 민족정신은 물론 인간의 정신은 “소외된 정신”으로서 언어 속에 내재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 정신이 음성과 결합하여 언어의 창조적 과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이 “소외 *Entfremdung*”로부터 복귀된 후부터

37) 언어가 유사이전에 형성되고 유사시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Hegel의 주장은 역사-비교언어학자들에게 언어연구의 목적은 물론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했다

38) Hegel철학의 체계에서와 같이 Schleicher에서도 정신 *Geist* (Hegel의 용어로는 절대적 관념 *absolute Idee* 또는 절대적 정신 *absoluter Geist*)은 발전의 근원으로 간주된다 특히 자연계에서 동식물의 생성과 발전은 이러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Hegel에 의하면 자연은 “소외된 정신 *sich entfremdeter Geist*”이다 자연 속에 정신이 깃들어 있는 동안 자연은 완벽한 창조력으로 충만되고 이 시기에 자연계의 삶과 만상은 엄청난 발전을 한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외된 정신”이 다시 정신 그 자체 “*für sich*”가 되면 자연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능력을 상실하고 기존의 형태가 점진적으로 파괴되고 멸망하기 시작한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7)

언어창조는 종식되었다. 유사시대 이후로 음성은 소모되고 형태의 다양성은 퇴색되고 단순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예컨대 이 시기에 여러 종류의 동화현상, 음의 감소현상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창조적 정신이 언어에서 이탈한 후에 죽은 짐승이나 식물에 화학적 법칙이 적용되듯이 언어유기체에도 물리적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즉 언어는 퇴화하기 시작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7). 그러나 그의 철학적 진화가설은 Humboldt의 창조적이고 진화유형론적 개념에 비하면 일보 후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역사-비교언어학적 방법에 의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언어변화의 목적론적 의의는 언어의 기원문제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변화에 관해서 두 가설이 있는데 그 하나는 Schlegel, Bopp, Grimm, 특히 Schleicher의 언어퇴보설이고 다른 하나는 Humboldt와 그 후계자들, Scherer 등의 언어진보설이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언어를 독립적인 유기체로 가정하고 언어가 그 자체의 내재적 법칙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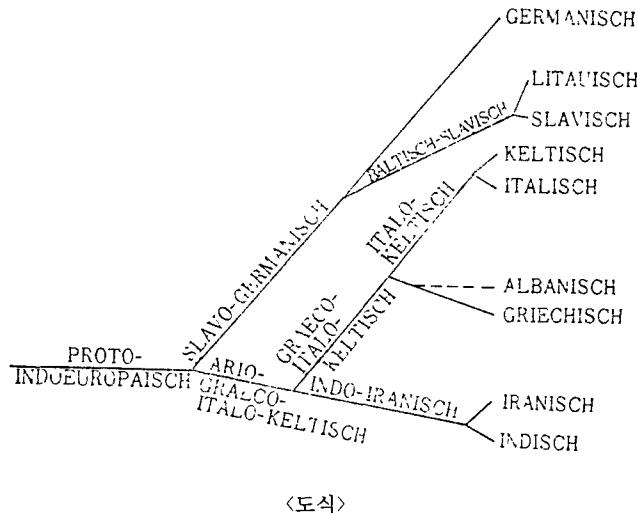
기능상으로 완벽한 유기체로서 언어가 역사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 즉 유사와 선사시대의 경계선을 전수된 문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인구어에서 도출된 음운법칙의 도움으로 변화로 인해서 전혀 손상되지 않은 완벽한 공통조어를 재구할 수 있다는 Schleicher의 주장도 이론적으로는 정당하다.

Schlegel, Bopp, Grimm, Schleicher 등 낭만주의자들과는 달리 Scherer(1868)는 언어가 선사시대에 발전했고 유사시대 이후로 쇠퇴한다는 언어진화의 2 단계설을 부인하고 언어는 퇴보하지 않고 발전하며 언어변화 역시 유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선사시대에서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Scherer의 언어변화에 관한 이론은 지질학적 발전은 선사시대나 유사시대에서 동일하고 불변한다는 Lyell의 가설에서 차용된 것이다. Scherer는 Lyell의 진화개념을 언어학에 도입했기 때문에 진화에 관한 한 지질학과 언어학의 경우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현재의 상태는 본질적으로 선사시대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요약컨대 현존하는 언어요소를 바탕으로 과거 변화 이전의 언어요소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는 Scherer의 주장은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의 낭만주의적 언어관을 탈피하고 실증주의적 언어관을 정립하려는 짚은이문법학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Jankowsky 1972, 110f.). 짚은이문법학파 이후부터는 대체로 종교적, 역사철학적, 민족적 동기에서 유발되고 언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언어연구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 2) 수형계통설

Schleicher의 자연과학적 언어이론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것은 공통조어의 재구와 생물학상의 수형계통모델을 근거로한 수형계통설이다. 수형계통설은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에도 역사-비교언어학에서 그 영향이 명백히 감지

된다.<sup>39)</sup> Schleicher(1861-62, 9)는 공통조어에서 파생된 자매어들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한다는 가정하에 인구어의 발전현상을 인간이나 동물의 계보도와 유사하게 도식화했다(*ibid.* 7).<sup>40)</sup>



〈도식〉

위의 도식과 같은 인구어 특유의 역사적 발전양상에서 Schleicher는 동쪽에 가까울수록 언어는 더 많은 고풍의 어투를 보존하며 반대로 서쪽에 가까울수록 언어는 보다 더 많은 새로운 어형을 활용하고 구형을 적게 보유한다는 사실을 확증했다. 따라서 그의 이론에 따르면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이 가장 먼저 서쪽으로 이주했으며 인구어 민족중 가장 동쪽에 거주하는 인도인의 언어인 산스크리트가 공통조어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공통조어 재구에 큰 역할을 했다.

Schleicher의 수형계통설은 원시적 형태의 동물과 식물의 진화를 표시하는 Darwin의 수형도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면밀히 관찰해 보면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Darwin은 살아있는 생물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계보를 확인했고 적어도 화석의 도움으로 확인된 발전고리를 참조하여 존재하지 않는 중간구성원을 결정했다. 그 반면에 Schleicher는 문헌 이전의 언어단계를 가설적 방법으로 재구했다. 이 외에도 Darwin의 수형도는 생물체는 해부 및 생물학적 의미에서 조직형태가 하등에서 고등상태로 진화함을 암시한다. 그의 이론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또한 가치평가를 포함하지

39) Lottner 등 Schleicher의 제자들이 수형계통설을 한층 더 명확히 규명하고 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40) Lane(1959, 315)은 Schleicher의 수형계통도는 본질적으로 비교방법을 적용해서 재구된 어족의 단순한 도식이지만 인구어의 계통적 친족관계를 간편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않는다. 그러나 Schleicher는 인구어가 개별어로 분기된 이래로 쇠퇴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한편 Darwin은 종의 변이는 적자생존의 원칙에 기인한다고 했지만 Schleicher는 언어는 언어내적 변화법칙에 따라 변화한다고 믿었다. 그들의 수형도를 비교해 보면 Schleicher가 Darwin의 영향만큼 적어도 Hegel의 발전이론과 변증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Boretzky 1977, 32f.)<sup>41)</sup>

Schleicher의 수형계통설의 특징은 언어상호간 시, 공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발전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수형계통설은 언어가 형태상으로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는데 단순하고 간략히 이해되므로 다른 이론이나 용어활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Pulgram(1953, 67)은 Schleicher의 수형도는 그 이전에 이미 알려진 인구어 친족관계 및 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을 도식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언어가 인접어와 완전히 고립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수형도의 학문적 가치는 현재에도 유효하며 비교언어학의 초기에는 인구어의 발전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Gleason, Jr.(1972, 12)는 그 이유를 공통조어를 수형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언어요소만을 근간으로 하여 재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수형계통설도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어족의 모델에서와 같이 언어가 생물과 동일한 유기체로 취급되는데 언어는 동식물과 같이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어는 인간의 다른 모든 행동양식과 같이 상호간 약속으로서 언어변화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지 언어 그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어떤 언어가 사어가 되었다는 것 역시 그 언어가 사멸한 것이 아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뿐이다. 언어는 나무가지와 같이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에서 급격하게 분기되지 않는다. 언어의 분기과정은 방언의 하위부문에서 시작되어 두 개 이상의 새로운 방언이 생성될 때까지 오랜 동안 집진적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단계구분은 자의적이다. 또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화자간 언어접촉이 계속되는 한 상이한 방언간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서도 상호간 영향관계는 지속된다. 비록 둘 다 동일한 수형도로 표시될 수 있지만 어족과 식물간의 발전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Robins 1967, 179).

수형계통설을 통해서 인구어 모든 개별어에 나타나는 언어사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실들은 Schleicher의 수형계통설과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Schmidt(1872)는 인구어 개별어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특정의 언어사실이 인구

41) Maher(1966)는 Schleicher가 Darwin 이전 생물의 진화에 관한 목적론적 관점에서 그의 이론을 전개했으며 Schleicher가 *The Origin of Species*의 독일어 번역본을 읽었지만 Darwin의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어 다른 집단의 개별어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또는 상이하게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Schleicher의 공통조어는 학문상의 허구이며 실제로 단일체가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 이질적인 방언으로 구성되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복합체의 모든 요소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언어학자들은 개별적인 어형이나 단어를 재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통일적인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Schmidt(1872, 27ff.)의 주장에 따르면 인구어의 발전은 하나의 계통에서 분기되는 수형도로 이해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는 상이한 부분의 환으로 즉 파형설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의 파형설에 의하면 언어변화는 언어집족이 계속되는 동안 어느 한 방언에서 다른 방언으로 또는 어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파된다.<sup>42)</sup>

두 이론은 원래 인구어에만 적용되었지만 점차로 언어발전의 일반적 모델로 인식되었다.<sup>43)</sup> 그러나 파형설 역시 하나의 이론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구어 발전과정에 관한 정확한 검증을 거쳐야함은 물론이고 실제로 인구어의 구체적 발전양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언어공동체내에 새로운 방언의 형성요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방언을 다른 언어로 만들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Schleicher의 이론이 한층 더 신빙성을 갖는다. 예컨대 여러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분산되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다면 언어분기의 가능성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종족들이 계속적으로 인접해서 정주한다면 언어분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두 이론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 즉 언어경계선을 형성하는 정치적 요인이나 의사소통의 방향을 규정하는 요인 등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미 언급했듯이 두 이론은 전혀 다른 사태관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했으며<sup>44)</sup> 어떤 측면에서는 수형계통설이 인구어의 분기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파형설은 언어공동체내에서 방언이 분기되는 과정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지만 왜 어느 지점에서 언어변화가 정지되었는지에 관해서 해답을 줄 수는 없다. 언어분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구분, 민족이동, 지리적 요인, 정치적 또는 종교적 행정구역의 분할,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형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의 논증에서 인구어 개별어화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정만 가한다면

42) 파형설은 특히 신언어학 즉 지역언어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43) 수형계통설과 파형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Pedersen(1965, 311-18)을 참조하여라.

44) Leskien은 *Die Deklination im Slavisch-Litauischen und Germanischen*(1876)의 서문에서 원래 분리될 수 없는 중간연결어 Zwischenverbindung가 존재했고 그 후에 언어분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수형계통설과 파형설간에 원칙상의 모순성이 없고 두 이론이 인구어의 역사적 발달과정의 서로 다른 면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을 조화시켜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수형계통설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느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방언으로 분기되지 않고 동일한 특성을 무작위로 자매어에 분배하는 까닭을 설명하는 데는 오히려 과형설이 더 적합하다. 여러 다른 언어변화가 분기 이전에 어느 한 동일한 장소에서부터 전파되지 않고 동일한 거리와 동일한 방향으로도 진행되지 않는다. 언어분기가 필연적으로 새로운 방언지역을 형성하지만 연속적으로 변경되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민족은 구방언의 경계선에서 무조건 분리되지 않는다.

언어의 동질성은 친족관계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는 종래의 학설과는 반대로 Trubetzkoy (1939, 81-89)는 언어의 수렴설을 주장했다. 그의 이론 역시 인구어에 국한되었지만 점차로 일반 언어이론으로 발전되었다. 19세기 말기에 이미 언어학자들은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언어가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영향을 통해서 구조상 서로 유사한 언어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보다 더 밀접한 관계와 공통성을 지닐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친족관계가 없는 언어 사이에 구조상의 유사성 정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Trubetzkoy는 이 언어들간의 관계를 언어연합 Sprachbund이라고 불렀다.

### 3) 유형론

분류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론적 분류와 계통론적 분류는 논리적으로 상호간 독립적이다. 물론 계통상으로 친족관계가 있는 어족은 어느 특정의 시기에 어느 정도 유형상의 동질성을 분명히 나타내지만 유형적 유사성 때문에 계통적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Robins 1973, 36f.). 유형론적 언어분류는 계통론적 분류와는 대조적으로 언어현상을 고립시켜 고찰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언어현상만을 추출하고 이러한 현상의 유무에 따라 언어를 분류한다.<sup>45)</sup> 초기 인구어 비교언어학자들은 단어를 언어의 기본단위로 취급했기 때문에 형태론상의 관점에서 유형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언어의 유형적 발전에 관한 개념은 이미 Port-Royal 문법의 저자와 Beauzée 등에 의해서 구체화 되었고 Schlegel(1808)이 유형론을 체계화했다고 볼 수 있다.

Schlegel은 언어를 유형상으로 고립어, 교착어와 굴절어로 분류했고 그중 가장 발전된 유형은 굴절어(유기체적 언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굴절어는 그 자체내에 물질과 정신의 통일체를 이루며 그 구조의 유기체적 완결성은 형태와 내용의 일치에서도 나타난다. 인구어가 여기에 속하는데 특히 산스크리트의 구조는 완벽하다.<sup>46)</sup> 굴절어 어형의 유기체적 발전은 교착어의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내적인(굴절을 통해서) 기계적 상호연관성에 의

45) 언어와 같은 매우 복잡다양한 현상을 유형에 따라 완벽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유형론은 언어의 층위에 따라 음운론적 유형론, 형태론적 유형론, 통사적 유형론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은 대체로 형태론적 유형론을 가장 중시한다(Goyvaerts 1975, 16)

46) Schlegel은 산스크리트를 인구어의 공통조어로 간주했다

해서 이룩된다. 그 특성은 어형의 다양성에서는 물론이지만 언표의 견고성에서도 나타난다 그 반면에 교착어는 경우에 따라서 결합되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는 어근과 접사의 축적에 불과하다.<sup>47)</sup>

중국어와 같이 어근만이 존재하고 굴절어미가 없는 고립어를 분석적 언어라고도 부르며 교착어를 접사어, 굴절어를 종합적 언어라고도 한다. Schlegel은 굴절어를 다시 분석적 굴절어와 종합적 굴절어로 양분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명사 앞에 관사가, 동사 앞에 대명사가 오며 결여된 어미의 기능이 전치사로 보충되는데 로만스어가 여기에 속한다. 후자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산스크리트, 희랍어와 라틴어가 이에 해당된다 (Goyvaerts 1975, 17f.).<sup>48)</sup>

Bopp는 Schlegel의 언어철학적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인구어 발전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Schlegel의 이론에 의하면 인구어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가장 발전되고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본래의 조화된 형태가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간다고 보아야 한다. Bopp도 인구어의 점진적인 퇴화현상에 관해서 언급은 했지만 결합적 기체의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적 유기체가 생성되어 이러한 퇴보적 기체를 대체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언어적 유기체는 어족에 특유한 확정된 법칙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이러한 유기체의 형태가 과학적 언어연구의 주요 관심사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244).

Bopp는 고대 인도의 전통, 특히 Pāṇini의 영향을 받아 어근설을 중시했는데 이것은 그의 과학적 언어연구의 토대를 이룬다(Bopp 1833 - 52). 모든 단어(독일어의 경우)가 일음절(어근)에서 생성되었다는 이론은 18세기 Fulda와 Adelung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Bopp는 이러한 어근설에 의거해서 언어를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ibid. 241)

1) 순수어근이 결여된 언어 → 이러한 유형의 언어에는 연결능력이 있는 어근이 없기 때문에 유기체적 특성과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중국어).

2) 일음절 어근으로 구성된 언어 → 인구어가 여기에 속하는데 연결의 기능을 가진 어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문법을 소유한다. 이 유형에서 조어법의 기본원칙은 동사와 대명사 어근의 결합에 있다

3) 이음절의 동사어근으로 성립된 언어 → 여기에서는 어근을 구성하고 기본의미를 내포하는 세 개의 자음이 한음절에 의무적으로 나타난다 셈어가 여기에 속하는데 그 문법

47) F. Schlegel(1808, 45-50)은 원래 언어유형을 굴절어와 고립어로 양분했다 그러나 그의 형 A. Schlegel이 굴절어미가 없는 고립어를 다시 중국어와 같이 문법적 구조가 없는 언어와 터키어와 같이 접사를 첨가해서 부차적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로 분류했으며 후에 전자는 고립어로, 후자는 교착어로 지칭되었다

48) Schlegel은 그 전 시대의 언어와 그 다음 시대의 언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위구분을 했다

적 형태는 인구어와 같이 연결을 통해서가 아니고 어근의 내적 변화에 의해서 형성된다.

언어연구를 통해서 자연 그리고 인간정신과 이성의 법칙을 규명하려는 Bopp의 노력에서 Schlegel과 Humboldt의 언어철학적 성향뿐만 아니라 보편문법과의 연관성도 찾아 볼 수 있다.

Humboldt는 처음에(1822) 역사적 관점에서 언어유형을 고립어 → 교착어 → 굴절어의 순으로 설명했으나 후에(1836) 유형론을 공시적으로 기술해야하며 차등을 두어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유형론상의 양극은 순수한 고립어와 굴절어이며 그 사이에 교착어가 위치한다. 그는 모든 언어구조의 가치와 발전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굴절어를 가장 완벽한 언어유형으로 평가했다. 그의 중국어에 관한 관심은 특별했으며 그도 그 당시 대다수의 언어학자들과 같이 형식적 문법요소가 결여된 특성 때문에 중국어가 언어로서 고도의 우수성을 가졌고 또한 정신적 능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다. 언어의 형성기에 굴절어미가 생성, 발전하고 그 후에 영어에서와 같이 점차적으로 쇠퇴하여 분석적 언어구조로 변화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확고한 언어상의 보수성 때문에 초기의 고립적 언어구조를 그대로 보존했으며 산스크리트는 고립어에서 굴절어로 발전했으므로 굴절어미를 가져보지 못했던 중국어와 전혀 다른 문법구조를 가진다(Robins 1973, 177).<sup>49)</sup>

Humboldt의 유형론은 본질적으로 Schlegel의 이론을 수정, 보완하고 기존의 세 유형에 또 하나의 새로운 유형 즉 포함어를 첨가한 것이다. Humboldt는 아메리카 인디안이나 에스키모어를 포함어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유형에서는 동사, 주어, 목적어, 수식어 등이 융합되어 하나의 단어로 나타난다. Schlegel 등 19세기의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포함어의 유형을 단순히 접사첨가의 발전된 단계로 취급하고 Humboldt의 이론을 부정했다. 최근에 Hjelmslev(1966, 128f.) 역시 Humboldt의 유형론적 분류를 과상적이고 불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언어의 형식적 범주에 바탕을 둔 완벽한 유형론을 정립하는 것이 언어학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유형론은 언어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언어법칙을 확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Humboldt의 언어유형에 관한 개념이 Schlegel의 모델보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Humboldt의 유형론적 해석 역시 그가 제시한 음운론적, 형태-통사론적 기준과 관련되는 언어외적 형태와 내적 형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순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언어의 유형론적 개념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언어학자는 Schleicher인데<sup>50)</sup> 그는 자연유기

49) 다수의 중국어 학자들은 중국어가 굴절어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후에 굴절어미가 상실되어 현재의 고립어가 되었다고 확신한다(Karlgren 1920 205-35) 그 반면에 인구어는 원래 고립어였다는 사실이 거의 확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50) Delbrück(1880, 43)은 Schleicher의 자연주의철학적 언어관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Bopp가 유기체라는 표현을 이미 언어에 적용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표현으로써 다만 언어가 자

체와 언어의 진화를 동일시하고 언어의 유형도 가장 간단한 구조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믿었다. 생물계에서와 같이 공시적으로 인접해서 나타나는 언어유형도 통시적으로는 연속해서 차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언어유형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서 언어가 진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865, 10). 그는 Humboldt의 네 유형을 부인하고 Schlegel식의 세 유형을 인정했으며 언어유형의 발전단계를 정적인 차원에서 동적인 차원 즉 일음절어 → 교착어 → 굴절어로 간주했다.<sup>51)</sup> Schleicher에 의하면 이 세 유형은 유사이전에 이미 형성되었고 유사시대에는 새로운 유형은 형성되지 않았으며 다만 이미 존재했던 유형의 발전과 소멸이 있었을 뿐이다.

Schleicher의 언어유형 분류의 기준은 의미와 문법관계의 표현방법이다. 그는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된 표상과 개념으로 정의했는데 그에 의하면 의미는 어근에, 문법관계는 접사에 내포되어 있으며 의미와 문법관계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의미와 문법관계의 표현방식인데 의미는 어근에, 문법관계는 문법관계를 형성하는 음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에는 세 유형만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고립어에서와 같이 의미만이 표시되거나 교착어의 경우처럼 문법관계를 형성하는 음성적 요소가 의미를 나타내는 음성적 요소에 첨가되든지 의미나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음성적 요소가 내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한 굴절어의 세 언어유형이 존재할 뿐이다 그가 네번째 유형의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음성적 요인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Schleicher는 언어를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6)

1) 일음절어(고립어) → 일음절어는 형식적으로 의미만을 표현하며 문법관계를 표현하는 음성적 표현방법이 없으므로 단어는 결정과 비교될 수 있는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언어에는 형태론적 범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관계는 일반적으로 어순에 의해서 표시된다(중국어, 베마어 등).

2) 교착어 → 교착어의 의미와 문법관계는 음성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즉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음성적 요인이 의미를 나타내는 음성적 요인에 첨가되나 그것들이 분리될 수 없

의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했을 뿐이다 언어는 본질이 아니며 본질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언어학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원용한다면 언어는 유기체가 아니고 기능이다 Delbrück은 언어학을 자연과학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언어는 인간 사회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학을 자연과학에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과학에 통용되는 하나의 동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과학도 연구대상에 따라 수학적, 실험적 또는 발생적 방법론이 적용된다

51) Schleicher(1848-50, Bd. II, 10)는 언어유형의 발전단계가 자연계의 결정 → 식물 → 동물의 단계에 상응한다고 주장했다

는 통일체를 형성하지 않고 다시 쉽게 분리된다 여기에서 단어는 식물을 연상케 한다(몽고어, 터키어, 항가리어, 드라비드어, 펁랜드어, 티벳어 등).

3) 굴절어 → 여기에서 문법관계는 물론이고 의미도 함께 표현하는 단어는 그 자체가 완결된 전체를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서 단어는 동물의 유기체와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굴절어를 언어발전의 최고단계로 간주했다(고대 인구어, 셈어)

고립어에서는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음성적 표현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어근이 단어가 된다. 문법관계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에 의해서 표시되는데 이러한 어근은 확정된 구체적 개념보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법관계를 표현한다 그 반면에 교착어에서는 문법관계 표시어가 어근에 첨가되는데 이 경우 문법관계 표시어는 일반적으로 본래의 완전한 어근형태를 상실한다 이와 같이 확고한 단어로의 융합과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음성적 표현의 생략을 통해서 의미표시어에 문법관계 표시어를 첨가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나타난다. 이러한 첨가를 토대로 수 많은 종류의 결합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굴절어에서는 어근 그 자체가 문법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문법관계는 상징적으로 표시된다(Arens 1955, 231-34)

Schleicher의 유형론에서도 자연과학적 경향뿐만 아니라 헤겔철학의 영향이 나타난다. 물론 자연과학적 개념을 언어학에 적용하는 데는 오류도 범했지만 언어를 자연유기체에 비유함으로써 언어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를 촉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Schleicher는 고립, 교착과 굴절의 원칙은 완성단계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에서 완벽으로 진화하는 계통적 발전론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결론은 실제 언어고찰에서 보다는 진화개념에서 추론되었다. 진화와 형식의 관계 즉 의미표시와 문법관계 표시는 언어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그는 표시방법의 모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중 어느 것이 언어행위에서 실제로 실현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Schlegel의 굴절어 분류방법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교착어를 융합의 상대적 정도를 기준으로 융합관계가 밀접하면 종합적 교착어로,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면 분석적 교착어로 양분하였다.

Scheicher는 언어에 의미와 관계를 표시하는 두 요소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언어는 이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기본의미 요소인 어근을 → R로, 어근에 병렬적으로 첨가되는 두번째의 독립적인 어근(영어의 blackbird에서 bird)을 → r로, 문법관계 요소인 접미사를 → s로, 접두사를 → p로, 삽입사를 → i로, 규칙적 변이형을 → x로 각각 표시한다면 그의 세 유형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Goyvaerts 1975, 18f.)

1) 고립어 → R 또는 R+r

2) 교착어 → 분석적 교착어—Rs+r, pR+r 또는 Ri+r

종합적 교착어—Rs, Ri 또는 pR

3) 굴절어 → 분석적 굴절어—RxS<sup>x</sup>+r

종합적 굴절어—Rx, pRx 또는 RxS<sup>x</sup>.

Morpurgo Davies(1975, 635)는 Schleicher가 그 당시 언어의 유형적 분류와 계통적 분류를 체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소수의 학자중의 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그가 계통상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두 언어가 유형적으로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Schleicher가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된 까닭은 그가 유형적 분류는 구조에 의해서 그러나 계통적 분류는 음성대응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가능성을 경험적 차원에서 배제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어족에 속하는 모든 개별어는 형태상의 구조에서도 일치한다. 따라서 모어의 분기는 형태구조의 진화가 이미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어야 한다. 계통적 관계는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유형적 분류가 계통적 분류를 선행한다는 그의 주장은 원칙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를 둔다. 그는 두 분류유형의 이러한 순서적 배열의 정당성은 언어가 단순한 형태에서 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역사시대에는 발전을 하지 않고 쇠퇴한다는 두 명백한 사실에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화 즉 언어형태의 발전은 위의 두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유사이전에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Bynon 1986, 141f.).

19세기 유형론자들은 Adelung(1806-17)이 수집한 방대한 언어자료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어형에 관한 연구만을 중시했다. 그들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사물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형변화를 토대로 언어유형을 분류했다. 산스크리트와 희랍어를 중심으로 재구된 인구어 공통조어는 어미변화가 다양하고 풍부한데 비해서 현재 인구어의 어미변화가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에서 소수의 유형론자들은 굴절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간소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중국어나 베트남어와 같은 고립어가 가장 발전된 언어단계다(Lehmann 1993, 37f.).<sup>52)</sup> 그러나 Marr는 이와 반대로 고립어를 가장 낮은 단계의 언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의 주장은 공산당이 중국정부를 장악했을 때 Stalin에 의해서 부인되었다.

Wundt는 Steinthal의 유형분류를 토대로(심리적 방법으로) 언어유형을 어근형, 교착형과 굴절형으로 분류했다. 그는 언어유형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심리적 특성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초기에는 언어유형의 세 단계를 정신적 발전의 자연적 단계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이러한 세 단계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언어발전의 단계를 표시하며 또 한편 모든 단계에서 언어는 어떤 특정한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52) Jespersen(n.d. 153-345, 381-466)은 현대영어가 고대영어보다 기능상으로 한층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최소한도의 굴절어미를 가진 현대영어가 최고의 발전단계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단음절의 구조를 유효성의 유일한 판단기준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는데 풍부한 어근 또는 완벽한 문법구조에서 발전의 결과가 나타난다<sup>53)</sup> 예컨대 최저단계에 속하는 중국어가 가장 발전된 언어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35)

언어유형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의 전성기에는 괄목할 만한 주목을 끌지 못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유형론이란 언어의 특성에 따라 언어를 분류하는 보편론인데 이러한 보편론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언어구조는 물론이고 언어와 문화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19세기 유형론자들은 언어와 민족간의 관계에만 지나친 관심을 표명했다 예컨대 Hegel철학의 영향을 받은 Schleicher는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미완성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인류사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어형성과 역사발전 과정은 어느 한 쪽이 중단하는 곳에서부터 다른 한쪽이 이어받는 인간의 정신적 행위이며 그것들은 동일한 발전단계로서 절대로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 Schleicher(1869, 35)는 그가 주장한 역사와 인간 사이의 발전관계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영어의 경우에서와 같이 민족의 역사가 풍부하고 화려할 수록 그 민족의 언어는 형태상으로 쇠퇴한다는 역의 관계를 제시했다

20세기 초기에 Finck는 언어를 8 유형으로 분류했다 Spair(1921)는 형태론적 기준과 의미론적 기준을 토대로 언어유형을 분류했지만 그의 접근방법도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최근 Greenberg(1963)는 통사상의 기준을 중심으로 언어유형을 분류했는데 그의 이론은 언어변화를 고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의 보편론에서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세 기본요소로 구성된다.

#### 4. 심리주의 언어철학

언어는 자연적인 대상과는 달리 문화의 산물로서 심리적 요인의 작용과 과정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그 자체의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이중성 때문에 자연과학과 심리학의 연구대상

53) Wundt(1863)는 그가 초기에 주창했던 언어의 세 단계발전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35참조)을 약 40년 후에 부인했다(Wundt 1900 - 20, I, 600) 그는 만년에는 유형론에 관해서 비판적 입장장을 취했으며 언어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포괄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 언어의 유형을 확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중국어는 현재 고립어로 분류된다 그러나 중국어의 역사에 정통한 학자들은 중국어가 원시적인 어근어(고립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중국어에서 본래 존재했었으나 소멸된 형태구성의 혼적과 현재 일상통용어의 복합적 조어법에서 나타나는 경향 등을 보면 중국어가 이전에는 굽절어였음이 확정적이다 거의 고립어가 된 현대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어와 같이 고도의 관념적인 언어가 몇 천년 동안이나 원시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역시 믿을 수 없다(이 책의 독일어판 번역자인 Meier는 이 책의 저자 Amirova et al.이 Wundt 자신이 후에 부인한 언어의 세 단계발전설을 수록한 것은 러시아에서 Wundt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된다. 언어가 사회적 작업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 발전이 여러 개인의 협력을 통해서 이룩된다는 점에서 언어는 문화의 산물로서 결국 사회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언어심리학의 연구대상에는 언어활동과 연관되는 정신적 과정의 분석뿐만 아니라 동적 언어체계 즉 언어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법칙에 관한 연구도 포함된다.<sup>54)</sup> Humboldt, Steinthal, Lotze, Lazarus, Paul, Wundt 등 많은 학자들이 언어심리학에 관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이들의 이론은 상이하지만 언어철학으로의 중심적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연구영역은 언어의 본질에 관한 문제와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대별된다. 그들은 모두 문법과 논리학의 분리를 필수적으로 인정하였는데 그들의 이러한 견해는 논리적 법칙을 언어학분야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물론 전자의 경우에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관한 문제제기 그 자체까지도 부인되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그들의 관심사는 논리와 문법의 관계보다는 일반적으로 이것들간의 모순성을 규명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언어심리학자들은 논리범주와 문법범주 사이에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언어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했다 (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21).

논리범주와 문법범주를 동일시했던 기존의 문법이론에 대한 비판, 개인의 관념과 연관되는 문제에 관한 깊은 관심 등이 또한 19세기 언어학과 일반적 보편문법의 전통파의 단절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언어분석 과정에서 심리적 분석이 주체가 되어 의도했던 언어분석의 목적이 퇴색되었지만 심리학적 연구방법이 언어연구 방법에 원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문법범주와 논리범주의 완전한 분리는 언어의 구체적이고 물리적 현상으로서 물리적-언어적 범주보다 불변하는 이상적-정신적 범주로서 언어의 우위성에 근본원인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언어학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젊은이문법학파 시대 19세기 말경에 절정을 이루었다.

언어심리학자들은 언어를 개인적 정신활동의 특별한 기제로 취급했는데 그 결과 개인의 의식에 나타나는 관념의 기제로서 언어에 중심개념을 둔 문헌학적 개인주의에서 유래된 개인심리학적 연구방법과 민족정신의 특수현상으로서 언어에 토대를 둔 집단심리학적 연구방법이 확정되었다.

물론 언어의 심리학적 분석과정과 언어학적 분석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이론과 방법론이 확립되어 심리학적 연구방법은 19세기 언어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리학적 연구방법은 후기 젊은이문법학파가 언어의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지향하고 심리학적 연구방법을 수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

54) 심리주의란 또 한편 젊은이문법학파의 특수한 연구방법 특히 분석주의 Atomismus라고 부르는 연구방법을 일컫는다

서 심리학적 연구방법은 역사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연구의 기본원칙을 형성한다<sup>55)</sup>

철학과 논리학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심리학적 연구방법의 대두는 그 원인이 언어학과 심리학 그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그 당시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내적인 면 즉 내용과 의미에 관한 연구를 등한시 했기 때문에 심리학이 이 방면에 관한 연구를 보완했다 그 반면에 심리학은 그 자체의 학문적 구성을 위해서 언어자료를 필요로 했다 한편 언어학자와 심리학자 사이에 공통적 방법론을 정립하려는 공동노력이 없지 않았다.<sup>56)</sup> 심리학자들은 언어를 사고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사고법칙에 관한 고찰을 중시했다. 따라서 그 당시 언어학자가 심리학자의 저서나 논문을 또는 그와 반대로 평가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겼으며 또한 상호연관되는 이론을 자기분야의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었다. 언어학자들은 언어와 사고의 연관관계 예컨대 어린이 언어습득, 이중언어 사용과 언어혼합 등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러나 가장 기대되었던 연구결과는 언어재구의 결과에서 심리학의 중심과제에 관한 해명을 얻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가정된 언어와 사고의 종속성을 토대로 모든 개체발생이 계층발생의 개괄을 명시한다는 발전사적인 가설의 역에서 언어발전(계통발생)에 관한 법칙의 발견이 사고법칙(개체발생)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Maas 1973, 71)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기에 심리학적 개념이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정기간 동안 자연주의철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념은 연구영역이 상이하지만 역사-비교언어학의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인 언어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이론화의 작업에 상호보완적이었다. 예컨대 자연주의 언어철학의 체계개념과 언어체계의 발전과 기능의 기제에 관한 개념이 언어의 심리학적 연구 특히 민족심리학적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Amirrova et al. 1975 - Meier 1980, 320)<sup>57)</sup>

언어학과 심리학간의 관련영역에 관한 연구결과(특히 Paul과 Wundt의 논쟁)를 분석해 보면 심리주의가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현재에도 심리학은

55) 젊은이문법학자들을 유추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6) 언어가 인간의 심리적 활동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언어학을 심리학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언어를 심리학적 방법에 의해서 연구하려는 왜곡된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Saussure 자신도 언어학을 심리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시인했다 최근 Chomsky 역시 언어학을 심리학의 하위분야라고 언급함으로써 Saussure와 비슷한 견해를 밝혔는데 실제로 심리학과 언어학을 분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57) 자연주의철학과 심리주의철학의 두 개념에서 모두 관찰의 대상은 언어 Sprache다 Humboldt에 의하면 언어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고 생성법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영원히 생성되는 것이지만 생성의 범위와 방법 역시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그는 언어와 언어행위 Sprechakt를 구별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적인 연구대상인 언어를 이론적으로 구분한 것은 언어학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통시언어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Humboldt에서 비롯되어 Steinkthal, Wundt로 이어지는 심리언어학은 Humboldt의 이론을 근간으로 발전의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언어학자들 특히 초기 젊은이문법학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젊은이문법학파 이전에 형성된 언어유기체설의 영향 때문에 청자와 화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심리학적 방법은 젊은이문법학자들로부터 도외시 당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그들의 실증주의적 언어연구 방법을 반영한다. 그러나 초기 젊은이문법학파의 실증주의적 언어연구 방법을 극복하고 언어연구(언어사)에 심리학적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Wundt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는 언어자료가 심리학의 정립에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했다(Boretzky 1977, 34f.).

Humboldt의 언어이론에는 심리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의 심리학적 이론은 보편적-인간적 이성과 정신을 근본으로 하는 보편적 차원의 심리주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는 언어현상의 개인심리학적 해석과 인간의 개성과 개인정신의 요인을 중시하는 경향도 물론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개성적인 요인, 개인의식 속에서 개인적 발달과정의 역할, 개인의 정신현상과 의사소통 과정의 결합, 언어를 통한 주체관념의 객관화와 언어주체성의 객관화현상은 19세기 중반 이후로 언어학자와 언어와 사고의 기제에 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한편 Kant와 Humboldt에서 유래된 의식의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기능으로서 사고가 “초인적 überpersonal”이라는 개념으로도 간주되었다. 의식의 기능 그 자체가 인간의 집합적 행동과 언어가 가장 중시되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조건하에서 사고의 “초인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명제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정신적, 언어적 현상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관찰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또는 집합적 심리주의, 집합심리학, 민족심리학으로 지칭되는 심리학의 한 분야가 언어학의 연구영역으로 등장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19f.).

19세기 후반에 심리학은 이미 정밀과학으로 정립되었고 Steinkthal(1855)은 Herbart의 표상심리학<sup>58)</sup> 이론을 언어연구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Steinkthal은 젊은이문법학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언어를 심리학의 연구대상으로 간주했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발전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학이 아니고 심리학의 연구대상이다.<sup>59)</sup> 그는 언어연

58) Herbart는 인간의 사고는 어떤 외적 인상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인간의 두뇌 속에서 무의식적 연합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59) Steinkthal은 Humboldt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의 대표적 저서인 *Grammatik, Logik und Psychologie, ihre Prinzipien und ihr Verhaltnis zueinander*(1855)는 Humboldt의 내적 언어형식에 관한 해설서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그는 Humboldt의 이론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화했다

구에는 논리학 대신에 심리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언어외적 설명을 또 다른 언어외적 설명으로 대치했을 뿐이다. 그에 의해서 심리학은 철학과 역사의 원리론이 되었는데 그 때문에 또한 특수한 언어상의 범주를 파괴시키는 등 위험스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러한 경향은 1900년 경 Husserl의 현상학의 영향으로 결국 퇴조되었다(Helbig 1973, 20).

Steinthal의 심리주의 언어철학은 Herbart의 민족심리학의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Herbart의 민족심리학의 기본원칙은 표상형성이 연합과 통각의 심리적 법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유도된다는 가설에 기초하는데 민족심리학의 창시자들 특히 Steinthal, Lazarus 등은 언어의 생성과정은 물론 언어의 발전법칙과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Herbart의 이론을 원용했다. 이와 같이 Herbart의 이론은 민족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었다. 예컨대 그의 심리학은 개인정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는 데 반해서 Steinthal은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22).<sup>60)</sup>

Steinthal에 의하면 언어는 민족심리학의 연구대상이며 민족심리학의 토대는 개인심리학이다. 그러나 공동체내에서는 특수한 심리적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족심리학은 고유한 연구방법을 필요로 하며 그 연구목적은 여러 민족의 특별한 생활방식과 정신활동의 형태에 관한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신화는 민족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민족정신은 우선적으로 언어에 나타나지만 역시 풍습, 관습, 제도, 행동양식, 전통과 성가 등에서도 발현된다. 민족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총괄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지적 행위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민족심리학이 바로 언어학이라고 할 수 있다. Steinthal(1855)은 모든 언어에는 그 자체의 고유한 법칙에 의해서 발전하는 언어고유의 사고가 내재한다고 강조하고 문법적 사실을 심리적 관점에서 취급하는 동시에 또한 기존의 문법이론에 나타나는 Becker(1841)의 논리적 보편주의를 비판했다.<sup>61)</sup> Steinthal은 모든 인류의 사고방식이 통일적이라는 Becker의 견해를 부인하고 모든 개별적인 개인의 특수한 논리에 상응하는 매우 다양한 사고유형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또 한편 Steinthal은 Schleicher의 자연주의적 언어관을 배격하고 언어를 동적인 언어연속체로 즉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전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집단의 언어활동으로 간주했다.

Steinthal은 많은 논문과 저서를 집필했는데 그중 *Grammatik, Logik, Psychologie, ihre*

60) Herbart도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며 심리학이 인간과 공동체의 관계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심리학은 편파적이고 불충분한 학문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teinthal의 입장에서 볼 때 Herbart의 이러한 주장은 불충분하였다. Steinthal은 인간을 사회의 구성요인으로 간주했고 그 결과 개인이 아니고 인간사회 그 자체가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61) Steinthal은 단어와 개념간에는 물론이지만 문장과 판단 사이에도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고 문법범주와 논리범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Prinzipien und ihr Verhältnis zueinander*(1855)는 그의 대표작이다 그에 의하면 언어행위가 심리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언어학은 당연히 심리학에 속하며 인식과학으로서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심리적 관찰의 대상으로서의 언어다. 그에게 언어는 의식적이고 내적인, 심적이고 정신적인 활동과 상태 그리고 연관관계(조음운동에 의한)의 표현이다 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언어를 통일적 원칙에 바탕을 둔 심리적 체계로 정의했고 언어의 개별성과 통일성의 기본원칙이 바로 민족정신의 통일성과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실험심리학<sup>62)</sup>의 창시자인 Wundt는 Steinthal에 의해서 확립된 언어학의 심리적 접근방법을 다른 관점에서 발전시키고 심화시켰다. Wundt 역시 집단심리학의 토대 위에서 언어학에 접근했는데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학자라기보다는 심리학자였다 그는 학문을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으로 양분했는데 심리학은 그 자체에 두 학문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다고 했다. 그의 언어철학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에 기초하는데 그에게는 심리학은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철학의 원칙론이 된다. 그 이유는 모든 학문적 인식은 경험적 원칙으로서 정신적 발전과정을 전제로 하는데 정신적 발전과정 그 자체가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의 지적 활동영역을 본질적으로 하위과정과 상위과정의 두 범주로 구분했는데 전자의 경우에 관념연합은 능동적 사고의 자료로 사용되며 정신적 요인의 연합적 결합은 수동적 인지상태의 조건하에서 실현된다. 후자의 경우는 통각현상을 말하는데 의식적인 정신의 발달과정과 관련된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21).

Wundt에 의하면 인류사회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개인 그 자체가 아니고 개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민족심리학 또는 사회심리학은 큰 의의를 지닌다. 민족심리학의 연구대상이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중에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는 언어현상에 정신적 활동은 물론이고 육체적 활동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의 심리적 활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현상으로 인간의 사고, 감정과 소망의 표현(조음된 음성의 도움으로)으로 정의된다<sup>63)</sup> 따라서 언어가 표출운동에 속할 뿐만 아니라 표현에서 유도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Wundt 1900-20, I, 31) 그는 언어의 생성 역시 언어는 정신물리학적 생에 대한 표현의 특별한 발전형태라고 심리적으로 설명했다

Wundt는 본질적으로는 Steinthal과 Lazarus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사회심리학을 제

62) Wundt는 실험심리학의 연구방법을 *Grundzu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gie*(1873-74)에서 자세히 논의했다 그는 언어, 언어의 본질, 언어기능과 언어발전에 관한 기제, 언어와 인간행위(특히 인간의 사고)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수행한 심리학자다

63) Wundt에 의하면 언어의 특성은 조음운동이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동기부여되었는데 있다

계화했지만 그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그 자신의 고유한 이론을 정립했다.<sup>64)</sup> 한 가지 부연할 사실은 Wundt가 민족심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그들이 주장한 “민속정신 Volksgeist”의 개념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영혼 Seele”이라는 개념은 육체 또는 육체적 생활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정신 Geist”이라는 개념은 육체와는 무관한 의미를 지닌다.<sup>65)</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민족심리학의 연구대상은 “Volksgeist”가 아니라 “Volksseele”이다. 따라서 “Volksgeist”는 어떤 특정한 민족 또는 여러 민족특징의 특성서술을 일컫는다(*ibid.* 8)

Wundt는 우선적으로 민족심리학의 연구대상을 개인적 특성을 지닌 모든 것을 배제하고 공동생활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법칙성에 한정했다. 또 한편 그는 민족심리학으로부터 민족학, 인류학과 일반역사학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Amirova et al. 1975 - Meier 1980, 333). 그의 민족심리학은 정신이란 선형적으로 주어지거나 통계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의 내적 체험의 총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심리학은 언어학과 같이 법칙과학이 아니라 역사과학에 속하기 때문에 심리학에 일반적으로 유효한 법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발전법칙일 뿐이다. 그의 이러한 개념이 젊은이문법학자들의 것과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이 그들의 연구영역을 초월한 것은 그의 언어연구 방법이 집단심리학인 민족심리학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정신은 본래 개인에게만 속하고 경험적 고찰방법도 개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 상호교신의 필요성 때문에 한 민족(한 언어공동체)내에 수많은 공통성이 필연적으로 형성됨으로써 결국 추상적인 총체정신이라는 개념을 추출할 수도 있다. 언어변화가 화자 개인으로부터 야기되고 개인적 특성만을 갖는다면 그러한 언어변화는 결코 어느 한 언어공동체내에서도 수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Boretzky 1977, 35)<sup>66)</sup>

Wundt에 의하면 언어변화는 정신물리학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며 순수한 물리적 요인이나 언어혼합을 통해서 설명될 수 없다. 그는 유추현상을 문법적 유추와 의미적 유추로 구별함으로써 젊은이문법학자들과 다르게 취급했다. 그는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언어를 개념과 표출운동의 정신적 영역에 소속시킴으로써 언어고찰에 새로운 방법 즉 총체적 개념, 의미론의 통각적 개념 등을 도입했다. 그 외에 그의 언어의 심리적 해석에서

64) Steinhthal과 Lazarus에 의하면 민족심리학은 개인심리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양자는 일반심리학의 통합적 구성요소를 형성한다

65) 그 당시 경험심리학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영혼은 정신적 행위의 실제적 결합으로 이해된다. Wundt는 경험적 고찰을 위해서 불필요한 영혼의 형이상학적 개념과 이러한 개념과 관련되는 법칙의 허구를 제거한다면 영혼은 의식의 직접적인 사실 즉 정신적 과정의 결합을 의미하고 정신적 법칙은 정신적 과정에서 확증된 법칙성을 말한다. 따라서 민족의 영혼은 개인의 영혼과 같이 심리학의 연구대상이다

66) 이러한 사실은 어느 한 언어공동체내에 속하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전제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긍정적인 면은 Grimm과 Humboldt에 이어 언어를 음성과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과 의미면에서 이해하려는 데서 나타난다(Ipsen 1932, 3). 그가 짚은 이문법학자들의 분석적 언어연구 방법을 지양하고 언어의 종합적 연구방법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초월성을 인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Helbig 1973, 22).

짚은 이문법학자들도 언어변화를 설명하려고 시도했을 때 결국 언어의 심리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언어에 내재하는 발전법칙이 없고 언어가 개인에 국한되어 존재한다면 언어변화에 관한 설명은 필연적으로 개인에게서 찾아야 한다. 연합개념의 도움 없이 설명이 불가능한 유추작용에서 그들의 입장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sup>67)</sup> 언어변화는 그들에게 언어의 파괴를 뜻하며 언어를 변화시킨다는 것 즉 언어를 파괴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변화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Schneider 1973, 32f.). 그들은 언어변화의 규칙성을 언어의 심리적 개별화에서 찾았는데 이와 같이 언어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언어로 되돌아 간 것은 그 당시 언어학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이 점에서 그들과 이상주의자들이 서로 일치한다.

Paul은 Steinkthal을 통해서 Herbart의 이론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이미 심리학의 이론이 언어학에 어느 정도 원용되었기 때문에 Paul은 비교적 용이하게 언어의 심리적 연구방법을 정립할 수 있었다. 물론 그의 심리적 연구방법은 Herbart나 Steinkthal의 형이상학적 이론보다는 진보적이지만 그가 심리적 방법을 언어기술에 적용하지 않고 언어변화에만 국한시켰다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Jankowsky 1972, 154).<sup>68)</sup> Paul은 Herbart의 정신적 유기체론(그의 형이상학적 이론은 제외되었음)을 개인적 언어유기체 구조와 기능방식의 모델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기본원칙으로 설정했다. Herbart의 심리학은 정신적 요인 즉 감각, 표상, 연합복합체를 일반적으로 양적 분석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개인심리학의 연합이론을 포함한다. 또 한편 그의 이론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표상체운동을 기술하고 연합적 병렬, 유사성과 내적 긴장관계에 대해서 규정된 인간상호간의 친화력, 감화, 장애와 인간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표상의 억압을 기계적이고 수리적인 틀에 맞추어 정의된 일반심리학적 법칙으로 표현된다 예컨대 표면상으로는 과학적으로 보이나 경험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집단형성 법칙, 무의식적이지만 규칙적인 정신적 과정의 가설을 내재하고 있는 표상장치가 바로 Paul의 심리적 모델이다(Schmid-Neuhaus 1978, 157).

67) 음운변화의 경우처럼 Wundt의 설명이 불확실할 때는 짚은 이문법학자들은 그의 이론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수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동화작용, 구개음화 현상 등과 같은 종류의 언어변화가 엄밀한 의미에서 정신적 요인에서 뿐만 아니라 음성생리학적 작용에서도 야기된다 는 사실을 강조했다(Schneider 1973, 35f.)

68) 그 이유는 Paul이 언어연구에서 역사적 연구방법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Herbart의 연합심리학의 표상장치와 같이 무의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동되는 심리학의 외곽이론을 토대로 그 당시 음운변화의 예외현상을 일반심리적 법칙에 따라서 인과관계 및 가계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변화의 심리적 요인을 규명 할 수도 있었다. 이 외에도 그의 개인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당시 음성생리학의 이론과 잘 조화될 수가 있었다(ibid. 160)

- 1) 이미 음성생리학을 통해서 음운변화의 원인이 언어사용자인 개인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 2) 음성생리학에서 음운변화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인지되었다

Paul(1975, 11)은 언어의 심리적 고찰방법의 중심개념을 연합이론으로 규정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모든 언어법칙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sup>69)</sup> 심리적 연합은 개인의 정신 속에서 만 가능하며 민족정신이나 민족정신적 요소 즉 예술, 종교 등과 같은 구체적 개념 속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은 버려야 한다<sup>70)</sup> 다시 말해서 그의 심리학적 연구 방법은 언어과정의 무의식성에 그 본질이 있는데 이러한 무의식성이 유추의 원리가 된다 언어활동을 통해서 의식 속으로 들어온 개념은 무의식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연합이라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서 재현된다. 개별적인 어휘는 인간의 마음 속에 크고 작은 수많은 집단을 형성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상호연관성은 음운, 의미 또는 음운과 의미간의 부분적인 일치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어휘의 연합군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과 연합을 이루면서 더 큰 집단을 형성한다<sup>71)</sup> 그는 여러 종류의 결합과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원칙을 유추라고 정의했는데 어휘연합의 가능성성이 유추작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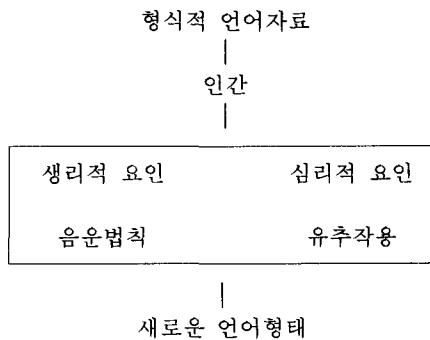
젊은이문법학자들은 음운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적 방법을 적용했다 언어변화의 심리적 과정은 Paul의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1880)에서 가장 자세히 설명되었다 심리적 설명방법은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철학적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낸다. 정확한 발음을 한다는 사실 즉 발화행위는 무의식적이지만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음운변화를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성생리학적 과정 외에 심리적 요인이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음운법칙의 예외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심리적

69) Paul의 심리학적 연구방법은 Bloomfield(1933, 17)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왜곡된 것은 아니지만 Paul이 언어법칙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심리적 연합원칙은 Kruszewski (1881)의 이론보다는 설득력이 없다(Koerner 1973, 108) 그러나 언어사실을 기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Paul의 심리학적 방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70) Paul(1975, 11f)에 의하면 정신력의 추상성을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심리학은 정밀과학이 될 수 있다

71) Paul은 연합군을 질료군과 형식군으로 대별했다 그는 이 외에도 질료군과 형식군간의 직접적인 교체에서 야기된 비례군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것은 질료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의 의미를 토대로 다시 여러 비례군으로 세분된다

현상인 유추작용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유추현상과 음운법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Schneider 1973, 30)



유추작용을 언어변화의 요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음운법칙과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는 두 요인을 다시 언어고찰에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연과학적 설명방법의 모순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심리적 설명에서는 음운법칙이 자연법칙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으며 심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음운변화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데 하나의 형식이라는 가설적인 원인으로 이해된다(ibid. 46) 따라서 음운변화에는 예외가 없다는 절대적 법칙개념이 약화되었으므로 깊은이문법학파의 언어연구 방법이 독단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언어변화는 규칙적인 언어사용에 내포된 동일한 일반적 요인의 작용결과로 기술되는데 이러한 요인은 심리적, 물리적 특성을 가지며 이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균등하게 작용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음운법칙을 Darwin의 진화론에 비교한다면 Paul은 언어에서 자연도태설이 결여된(발생학적) 변화장치의 정교한 이론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다

언어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언어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언어학자에게는 심리적 설명이나 논증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언어활동의 가장 중요한 특성과 과정은 정신적 과정의 토대 위에서만 이해되기 때문에 심리적 이론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특성과 과정이 충분히 기술되거나 해명될 수 없다. Paul의 언어이론에는 언어의 구조와 활동과정에 관한 심리적 설명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언어활동의 고립된 생리적-물리적 생성물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언어변화를 음성생리학적이고 청각적인 드러난 현상을 근간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신 속에서만 모든 심리적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그의 개인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민족심리학을 주창한

72) Sommerfelt(1962, 37)는 Paul과 Wundt의 심리적 연구방법에 공통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견해는 너무 포괄적이다

Wundt의 이론이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sup>72)</sup> Paul은 Wundt가 1) 언어변화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 속에서가 아니라 민족정신에서 찾으려 했고, 2) 언어를 청자의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다만 화자의 관점에서 취급했으며, 3) 언어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민족심리를 설명하는 데 원용했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19세기 말기에 심리적 연구방법이 언어학에 도입됨으로써 그 당시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를 해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으로 언어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언어변화의 매개체인 개인의 정신적 언어유기체를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자기자신의 언어감각의 면밀한 분석 즉 자기 성찰이 언어활동의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각되었다(Paul 1975), 29f.). 말하자면 언어학자 자신이 그의 가장 훌륭한 정보제공자라는 말인데 이러한 견해는 최근 Chomsky에 의해서 다시 거론되었다.

## 5. 결 론

언어학의 연구대상인 언어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고 항상 변화하며 또한 여러 다른 방법론을 적용해서 고찰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최근에 언어학에는 연구대상이 없다는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언어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언어학의 초기단계에 이미 언어현상의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인지되었다. 따라서 언어연구는 관찰할 수 있는 외적 형태보다는 언어내적 기체의 해명에 치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언어는 인간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사회적 약정에 의해서 생성되었고 또한 인간사고의 표현방법이다. 이러한 언어의 속성 때문에 언어학은 언제나 철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언어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Herder와 Humboldt 이후부터이며 또한 언어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도 인간과 사고에 관한 철학적 문제제기와 더불어 18세기에 비로소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했다. 그러나 언어 그 자체에 대한 경험적 방법에 의한 연구는 19세기 실증주의의 영향하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18세기와 19세기는 언어의 연역적, 귀납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수행되었던 시대다. 보편문법학자들은 언어자료를 토대로 언어체계의 보편화와 일반 언어이론의 정립에 전념하였다. 또 한편 그들은 여러 언어의 형태목록과 어휘목록을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비교언어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언어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역사-비교언어학에서 비롯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1) 언어의 친족관계 규명과 공통조어의 재구, 2) 언어의 문화사적 소속과 무관한 언어유형의 분류, 3) 언어자료의 기술과 비교를 토대로 언어체계의 보편화와 일반 언어이론의 정립 등 자료중심적 연구에 전념하였다. 또 한편 그들은 여러 언어의 형태목록과 어휘목록을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비교언어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언어를 비교한다는 것은 유사한 어형을 서로 비교함을 뜻하는데 Schlegel(1808)이 처음으로 언어비교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Bopp, Schlegel, Rask, Grimm, Schleicher 등에 의해서 역사-비교언어학은 동일어족의 개별어를 비교하는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했고 짧은 이문법학과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예컨대 19세기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합리주의적 이론과 방법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적 방법으로 언어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언어자료의 수집,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정리 및 체계화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언어의 개별성과 공통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설정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그들 역시 경험적 방법에 의한 언어외적 형태에 관한 고찰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언어의 본질을 보다 더 완벽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간사고의 기제, 의식과 창조력에 관한 연구에도 주력했다.

언어사에서 입증되었듯이 언어학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철학적 사조에 상응하는 주제와 선정된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언어가 철학 특히 논리학의 연구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한편 언어는 사회적 산물로서 사회조직이나 모든 제도와 같이 역사적, 심리적 연구대상이 되며 그 본질규명은 실험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구성요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언어는 언어현상이 지니는 생리적 특성 때문에 자연과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요약컨대 언어연구가 경험적 방법은 물론이지만 인식론의 일반적 방법론에 의존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언어연구에 역사학적, 자연과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연구방법이 원용되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새로운 인식과 학문적 사고는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인접학문의 영향 또한 그 다양한 연구방법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19세기 언어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는 Herder, Schlegel, Bopp, Darwin, Hegel, Humboldt, Steinkthal, Schleicher, Wundt, Paul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은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언어를 자연유기체 즉 체계로 간주하고 언어변화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시도한 점이다.

19세기에는 언어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Vico의 역사주의 원칙이 점차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역사주의 원칙이 언어비교와 언어분류에 적용되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과학은 그 본질이 가설이 아니고 인간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학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Coseriu 1988, 60) 역사-비교언어학은 처음에는 인구어에 국한되었지만 점진적으로 언어학의 일반적 모델로 발전했다. Paul이 언어의 역사학적 연구방법 외에 어떤 다른 방법도 인정하지 않았듯이 역사학적 연

구방법은 그 당시 언어연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한편 언어학은 18세기 말기와 19세기 초기에 문화운동인 낭만주의와 무관할 수 없었다 낭만주의 초기에는 민족정신, 민족문학, 언어정신 등의 개념이 중시되었다. Schlegel은 낭만주의의 선언으로 간주되는 *Über die Sprache und Weisheit der Indianer*(1808)에서 역사-비교언어학에 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취급했고 언어의 체계를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비교문법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Schlegel이 음운대응 관계를 중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Bopp(1816)는 동사의 형태분석을 통해 언어간 친족관계의 정도를 규명했는데 Bopp의 궁극적 목적은 변형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원시어의 형태에서 인간사고의 원형을 발견하는 데 있었다.

이미 19세기에 자연과학은 타학문의 새로운 개념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하반기에 언어학자들은 언어현상에도 자연법칙과 같은 엄격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언어학을 자연과학과 같은 정밀과학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언어연구에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도입했다. 언어를 자연과학의 개념인 유기체로 취급하려는 경향은 초기 비교언어학자들에게서 비롯되었으나 언어가 자연유기체로서 자연과학의 연구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된 것은 Schleicher에 의해서이다 그는 기존의 언어학을 정밀과학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언어학(Glottik)을 자연과학으로, 문헌학을 역사과학으로 구분했다

Schleicher에 의하면 언어는 음성으로 형성된 자연유기체로서 합목적적인 내적 조직에 의해서 통제되고 객관적 법칙에 따라 생성되고 성장하며 쇠퇴한다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은 그의 언어진화 가설과 수형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처음에는 언어학에 자연과학의 법칙개념과 용어가 막연히 도입되었으나 과학주의는 Schleicher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언어는 자연유기체(체계)로서 정의되었다 언어학자들은 역사-비교언어학의 테두리 내에서 언어자료의 분석을 통해 객관적 법칙을 발견하려고 시도했으며 그 결과 객관적 고찰이 가능한 음성에 관한 연구가 중시되었다. Schleicher가 생물학적 언어연구의 전성기를 이루었다면 젊은이문법학자들은 언어의 물리적 연구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음운법칙 개념의 도입과 더불어 언어학의 비과학적 마지막 단계가 극복되었다 그들이 음운법칙을 가장 중시하는 이유는 그 당시 풍미했던 학문적 가치는 현존하는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제에만 주어져야 한다는 실증주의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운변화에는 예외가 없다는 자연과학적 연구방법론의 절대화와 더불어 또한 언어변화의 원인규명에 관한 문제가 강력히 대두되었다 음운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운변화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현재 수집된 다양한 언어자료, 언어학의 이론정립에 관한 높은 지식수준,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음운변화에 관한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세기 중반기에 Humboldt, Herbart 등의 영향으로 언어연구에 심리학적 개념이 도입되었다. 전술했듯이 언어는 자연적인 대상과는 달리 문화의 산물로서 심리적 요인과 그 과정의 작용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Steinkthal에 의하면 언어는 발전과정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그 역시 언어학에 논리학 대신에 심리학의 연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언어외적 설명을 다른 언어외적 설명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물론 그 당시 언어학자와 심리학자 사이에 공통적 연구방법을 추구하려는 공동노력이 없지 않았다. 그들을 언어법칙의 발견이 곧 사고법칙의 발견이라고 믿었다.

언어의 심리학적 연구는 Paul의 문헌학적 개인심리학과 Steinkthal, Lazarus, Wundt 등의 집단심리학적 방법으로 대별된다. 언어의 심리학적 연구도 역시 젊은이문법학과 시대에 가장 발전했는데 젊은이문법학자들은 음운법칙의 예외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으로 심리학의 개념(유추현상)을 도입했는데 그들을 유추론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어의 심리학적 연구와 자연과학적 개념은 일정기간 동안 역사-비교언어학의 이론정립을 위해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었다. 예컨대 자연과학의 체계개념, 언어체계의 기능과 발전의 기제에 관한 개념이 언어의 심리학적 연구방법의 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언어의 심리학적 연구란 언어행위와 관련된 정신적 과정의 분석을 의미하지만 언어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법칙에 관한 연구도 포함된다. 심리학적 방법의 도입으로 물론 복잡다양한 언어현상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명할 수는 없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언어에 관한 새로운 많은 사실이 발견될 수 있었다.

요약컨대 그 동안 수집된 언어자료와 언어기술을 토대로 18세기 중반에는 비교언어학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19세기 초기에 합리주의적 언어이론에 대치되는 역사-비교언어학이 정립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그 당시 성행했던 언어철학적 사조에 따라 언어현상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특히 실증주의적 영향을 받고 자료(문헌)중심의 언어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방법의 토대 위에서 언어분석 과정의 정밀화와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타학문과의 관계가 확고하게 되었고 인접학문의 영향에 따라 연구방법을 달리하는 학파가 형성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은 젊은이문법학과 시대를 절정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 사라지고 현재는 현재의 철학적 사조에 상응하는 구조주의언어학과 변형생성문법이 새로운 방법론을 정립하고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언어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언어학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언어이론과 기술 그리고 언어비교와 언어의 역사성(발전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최근 언어의 역사성에 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자연어의 동적인 면과 이질성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에 상응하여 체계언어학의 한계성에 관한 논란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어의 내적인 이질성을 그 가능성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언어의 사회적 연관성에서 찾으려는 경향과 공시언어학과 통시언어학이 상호보완적 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 참 고 문 현

- Adelung, Ch. 1806-17. *Mithridates oder allgemeine Sprachkunde mit dem Vater Unser als Sprachprobe in bey nahe fünfhundert Sprachen und Mundarten*, Bd. I - IV, Berlin.
- Amirova, T.A./Ol'chovikov, B.A./Rozdestvenskij, Ju.V. 1975. *Abriß der Geschichte der Linguistik*, ins Duetsche übersetzt von B. Meier, 1980, Leipzig.
- Amsterdamska, O. 1987. *Schools of Thought*, Dordrecht/Boston/Lankaster/Tokyo.
- Arens, H. 1969. *Sprachwissenschaft*. Der Gang ihrer Entwicklung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Frankfurt/M.
- Becker, K. 1841. *Organismus der Sprache*, Fraukfurt/M.
-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 Bopp, F. 1816. *Über das Conjugationssystem der Sanskritsprache in Vergleichung mit jenem der griechischen, lateinischen, persischen und germanischen Sprachen*, Frankfurt/M.
- . 1833-52. *Vergleichende Grammatik des Sanskrit, Zend, Armenischen, Griechischen, Lateinischen, Litauischen, Altslavischen, Gothischen und Deutschen*, I - III, Berlin.
- Boretzky, N. 1977. *Einführung in die historische Linguistik*, Hamburg.
- Bynon, Th. 1986. August Schleicher. Indo-Europeanist and general linguist, in Bynon, Th. /Palmer, F.(Hg.), *Studies in the history of western linguistics*, Cambridge, London.
- Cherubim, D. (Hg.), 1975. *Sprachwandel*. Reader zur diachronischen Sprachwissenschaft, Berlin/New York.
- Coseriu, E. 1958/1974. *Synchronie, Diachronie und Geschichte*, München (dt. Übersetzung des spanischen Originals).
- 1988. *Einführung in die 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Tübingen.
- Cuvier, G. 1812, *Recherches sur les ossemens fossile de quadrupèdes*, Paris.
- Delbrück, B. 1880. *Einleitung in das Sprachstudium*, Leipzig.
- Descartes, R. 1637. *Discours de la méthode pour bien conduire sa raison, et chercher la vérité des sciences. plus la dioptrique, les météores et la géometrie*, Leyden.

- Diez, F. 1836-43. *Grammatik der romanischen Sprachen*, Bonn.
- Gleason, Jr. H. 1972. Genetic Relationship among Languages, in Keiler A. (Hg.),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 Goyvaerts, D. 1975. *Present-Day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An Introductory Guide to Theory and Method. Part I, General Background, Phonological Change*, Ghent-Antwerp.
- Greenberg, J. 1963.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Greenberg, J. (Hg.),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Mass.
- Grimm, J. 1819. *Deutsche Grammatik*, Göttingen.
- Hall, Jr. R. 1972. The Reconstruction of Proto-Romance, in Keiler, A. (Hg.), 1972.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 Haym, R. 1859. *Wilhelm von Humboldt. Leben und Charakteristik*, Berlin.
- Heeschen, C. 1972. *Grundfragen der Linguistik*, Stuttgart.
- Helbig, G. 1973. *Geschichte der neueren Sprachwissenschaft*, München.
- Herder, J. 1772. *Abhandlung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 welche den von der Königlichen Academie der Wissenschaften für das Jahr 1770 gesetzten Preis erhalten hat, Berlin.
- Hjelmslev, L. 1966. *Le Langue*, Paris.
- Humboldt, W. 1822. *Über das vergleichende Sprachstudium in Beziehung auf die verschiedenen Epochen der Sprachentwicklung*, Berlin.
- . 1827. *Über den Dualis*, Werke, Bd. Ⅲ, Berlin(1963).
- . 1836. *Über die Kawi-Sprache auf der Insel Java*, Berlin [Bd. I Teil I :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ß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es*].
- Ipsen, G. 1932. Der neue Sprachbegriff, in *Zeitschrift für Deutschkunde*.
- Jankowsky, K. 1972. *The Neogrammarians*, The Hague-Paris.
- Jespersen, O. n.d. Selected Writings of Otto Jespersen, London.
- Jones, W. 1788(1786). The Third Anniversary Discourse, delivered [...] by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Asiatic Researches* I. (Repr, in *A Reader in Nineteenth-Century Historical Indo-European Linguistics* ed. by Lehmann, P., Bloomington/London, 1967).
- Kandler, G. 1954. Das Geschichtliche in der Sprachwissenschaft und seine Ergänzungen, in Lyons, J., *New Horizons in Linguistics*, Harmondsworth(Penguin).
- Karlgren, B. 1920. Le protochinois, langue flexionnelle, in *Journal asiatique* 15.

- Koerner, E. 1972. Hermann Paul und Synchronic Linguistics, in *Lingua* 19.
- . 1973. *Ferdinand de Saussure*, Braunschweig.
- Kruszewski, M. 1881. *Über die Lautabwechslung*, Kazan.
- Lane, G. 1959. Review of Otto Hofler, Stammbaumtheorie, Wellentheorie, Entfaltungstheorie, in *Language* 35.
- Lehmann, W. 1993. *Theoretical Bases of Indo-European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 Leskien, A. 1876. *Die Deklination im Slavisch-Litauischen und Germanischen*, Leipzig.
- Lyell, Ch. 1822. 1830-33. *Principles of Geology*, London.
- Maas, U. 1973. *Grundkurs Sprachwissenschaft I*, Die herschende Lehre, München.
- Maher, P. 1966. More on the history of the comparative method. The tradition of Darwinism in August Schleicher's Work, in *Anthropological Linguistics* 8.
- Meillet, A. 1903 - Printz, W. 1909. Dt. *Einführung in di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Leipzig/Berlin.
- Morpurgo Davies, A. 1975. Language classific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Sebeok, T. (Hg.),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13. Historiography of Linguistics.
- Müller, M. 1861-64. *Lectures on the Science of Language*, London, Series I, II.
- Paul, H. 1880.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Halle 1880, 51920, 9Tübingen 1975 [=unveränd. Nachdr. der 5. Aufl.].
- Pedersen, H. 1931. *The Discovery of Language*. Linguistic Science 19th. Century, Cambridge/Mass. [2. Auflage 1965].
- Pott, A. 1833-36. *Etymologische Forschungen auf dem Gebiet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Lemgo.
- Pulgram, E. 1953. Family Tree, Wave Theory and Dialectology, in *Orbis* 2.
- Rask, R. 1818. *Undersøgelse om det gamle Nordiske eller Islandske Sprogs Oprindelse*, Copenhagen.
- Robins, R. 1967.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London.
- Sapir, E. 1921. *Language*, New York.
- Scherer, W. 1868.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2. Auflage 1890]
- Schlegel, F. 1798. *Geschichte der Poesie der Griechen und Römer*, o. O.
- . 1808. *Über die Sprache und Weisheit der Indier*, Heidelberg.
- Schleicher, A. 1848-50. *Sprachvergleichende Untersuchungen*, 1-2, Bonn.
- . 1856-57. *Handbuch der litauischen Sprache*, I - II, Prag.

- 1861-62.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Weimar.
- 1863. *Die Darwinsche Theorie und die Sprachwissenschaft*, Weimar.
- 1865. Die Unterscheidung von Nomen und Verbum in ihrer lautlichen Form, in *Abhandlungen der Königlich-Sächsischen Gesellschaft der Wissenschaft* 10, Philologisch-historische Klasse 4, 5.
- 1869. *Die Deutsche Sprache*, Stuttgart.
- Schmeller, J. 1827. *Über das Stadium der altdutschen Sprache und ihrer Denkmäler*, München.
- Schmid-Neuhaus, I. 1978. *Kommunikationstheoretische Aspekte in Herman Pauls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Forschungsberichte des Instituts für Phonetik und Sprachliche Kommunikation der Universität München 9.
- Schneider, G. 1973. *Zum Begriff des Lautgesetzes in der Sprachwissenschaft seit den Junggrammatikern*, Tübingen.
- Sommerfelt, A. 1962. *Diachronic and synchronic Aspects of Language*. Four Essays, Frankfurt/M.
- 1975 Die historische Betrachtungsweise in der Sprachwissenschaft, in Cherubim, D. (Hg.), *Sprachwandel*, Berlin/New York.
- Steinthal, H. 1855. *Grammatik, Logik und Psychologie, ihre Prinzipien und ihr Verhältnis zueinander*, Berlin.
- Strunk, K. 1976. *Generative Versuche zu einigen Problemen in der historischen Grammatik indogermanischer Sprachen*, Innsbruck.
- Telegdi, Z. 1967. Struktur und Geschichte. Zur Auffassung ihres Verhältnisses in der Sprachwissenschaft, in *Acta Hungaricae* 17.
- Trubetzkoy, N. 1939. *Grundzüge der Phonologie*, Prague.
- Twaddell, W. 1943. Fr. Schlegel's Criteria of Linguistics Relation, in *Monatshefte für deutschen Unterricht* 35.
- Vico, G. 1725. *Principi di una scienza nuova*, Napoli.
- Wundt, W. 1863. *Vorlesungen über die Menschen und die Tierseele*, Hamburg.
- 1873-74. *Grundzü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gie*, Leipzig.
- 1900. *Völkerpsychologie*. Eine Untersuchung der Entwicklungsgesetze von Sprache, Mythos und Sitte. I. Band. Die Sprache, Leipzig.
- Zipf, G. 1965. *The Psycho-Biology of Language. An Introduction to Dynamic Philology*.

Cambridge/Mass

### 《Zusammenfassung》

## **Untersuchungen zum Einfluß der Sprachphilosophie im 19. Jh. auf die Entwicklung der historisch- 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Youn-Han Kim**

In den letzten Jahren wird in der Sprachwissenschaft das Studium der Geschichte der Entwicklung theoretischer Ideen und Forschungsmethoden als eine Aufgabe von erstrangiger Bedeutung erkannt. Es treten immer mehr verallgemeinernde Untersuchungen auf, die Aspekte der Entwicklung der Sprachwissenschaft darzustellen. Das historische Herangehen an die Theorie der Sprachwissenschaft bedeutet, daß man nichts von der früheren Resultaten verwerfen darf, sondern ihnen einen besonderen Platz und aktuelle Auslegung geben muß. Solch ein Herangehen setzt eine kritische Betrachtung des bisher sprachwissenschaftlich Erreichten unter dem Gesichtspunkt der Perspektive der Entwicklung der Sprachwissenschaft voraus.

Um das Wesen der Sprache und den Zustand moderner sprachwissenschaftlicher Probleme besser zu verstehen, ist eine genaue Darstellung der vorausgegangenen Geschichte der Entwicklung der Sprachwissenschaft unumgänglich. Außerdem stellt eine systematische Zusammenstellung der forschungsgeschichtlich relevanten Ansätze neue Möglichkeiten einer wissenschaftkritischen Reflexion bereit.

Die Eigentümlichkeit der Sprachwissenschaft besteht darin, daß ihr Forschungsgegenstand immer wissenschaftlichen Untersuchungen zugänglich und daß ihre Untersuchungsmethode sehr eng mit derzeitigen philosophischen Gedanken verknüpft ist. Die Sprachwissenschaft war im Laufe ihrer Entwicklung durch die anderen Wissenszweigen beeinflußt worden. Es ist natürlich, daß sich die Auffassungen der Sprache je nach dem "Zeitgeist" unterschieden. So stellt z. B. die Geschichte der Sprachwissenschaft im 18. und 19. Jh. im bedeutenden Maße die Geschichte der Entwicklung der Auffassungen über die Natur der Sprache und ihr Funktionieren dar. Es ist auch klar, daß die Einbeziehung philosophischer Hauptrichtungen im

Untersuchungsbereich der Sprachtheorie eine gute Vorstellung von der Entwicklung der Sprachwissenschaft verschafft. Die vorliegende Arbeit orientiert sich an der Erklärung des Verhältnisses von Herausbildung der Sprachtheorie und sprachphilosophischen Richtungen im 19. Jh.

Die Grammatik von Port-Royal (allgemeine rationale Grammatik) überrundete die Sprachtheorie des 17. Jhs. und war der unmittelbare Vorgänger der Ideen des 18. Jhs. auf dem Gebiet der Erforschung der Sprache und der Beziehungen von Sprache und Denken. Als Resultat einer allmählichen Ansammlung des reichhaltigen Sprachmaterials sowie auch Beschreibung einer Vielzahl von Sprachen entstehen in der Mitte des 18. Jhs. die Voraussetzungen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Am Anfang des 19. Jhs. wurde die historisch-vergleichende Sprachwissenschaft in Deutschland herausgebildet. Danach wurden grosse Anstrengungen unternommen, um ihre Methode zu präzisieren und weiterzuentwickeln.

Natürlich kam die Idee der genetischen Verwandschaft zwischen den Sprachen lange Zeit vor dem Entstehen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auf. Mit dem Beginn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wurde in die Sprachtheorie die Vorstellung vom Vergleich der Strukturen verschiedener Sprachen auf historischer Basis eingeführt. So entstand die historisch-vergleichende Sprachwissenschaft vom Indogermanischen durch die Anwendung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Forschungsmethode auf die indogermanische Sprachfamilie. Die historisch-vergleichende Sprachwissenschaft bildete sich zunächst innerhalb der Indogermanistik heraus. Später wurde die Forschungsmethode auch auf die historisch-vergleichende Beschreibung anderer Sprachen übertragen.

Die historisch-vergleichende Sprachwissenschaft umfaßt einen großen Abschnitt, der die Sprachphilosophie und die Entwicklungstheorie der Sprache sowie die Sprachvergleichung enthält. Die neuen Erkenntnisse und wissenschaftlichen Gedanken wirkten sich auf die Bildung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aus. Die Möglichkeit der sprachwissenschaftlichen Forschung erweiterte sich und die Verbindung mit anderen Wissenschaft festigte sich. So entstanden neue sprachwissenschaftliche Forschungsmethoden, ebenso neue Bereiche, die mit anderen Wissenschaften in Berührung standen. Unter dem Einfluß der benachbarten Wissenschaften bildeten sich verschiedene Forschungsmethoden in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heraus. Somit umfaßten die Forschungsmethoden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die der damaligen Sprachphilosophien des Historismus, Naturalismus, Psychologismus sowie der Romantik.

Schon im 18. Jh. unternahmen einige Grammatiker den Versuch, die These der Geschichtsphilosophie von Vico auf die Sprache anzuwenden. In der Sprachwissenschaft festigte sich allmählich das Prinzip des Historismus und verkörperte sich in der Methode der Sprachvergleichung unter historischem Blickwinkel und in der Klassifikation der Sprachen unter Berücksichtigung ihrer Entstehung und Entwicklung. Die wissenschaftliche Werbestimmung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des 19. Jhs. hing grossenteils von der historischen Untersuchungsmethode. Das bedeutete eine Aufwertung der Empirie und der induktiven Methode in der Sprachwissenschaft gegenüber der reinen Theorie und der deduktiven Methode.

Die historisch-vergleichende Sprachwissenschaft ging nicht an der philosophischen und literaturhistorischen Bewegung der Romantik vorbei. Die Romantik zeigte großes Interesse für die Erforschung der Symbolik in der Sprache, in der Poesie, Mythologie sowie in der Kunst. Die Untersuchung der Sprache führte infolge der Technik und der Universalität der sprachwissenschaftlichen Methoden zu einer ganz spezifischen Interpretation der romantischen Ideen innerhalb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Die Suche nach einer Ursprache war bei den Romantikern mit ihrer Suche nach einem Urvolk verknüpft sowie nach dessen Lebensformen.

Kennzeichnend für die historisch-vergleichende Sprachwissenschaft des 19. Jhs. waren historische Methode sowie die Orientierung an die Naturwissenschaft. Die Vertreter der naturalistischen Richtung betrachteten die Sprache als natürlichen Organismus. Das Streben, in der Sprachwissenschaft eine exakte Wissenschaft zu sehen, führte sie dazu, daß sie eine strenge Abgrenzung zwischen Sprachwissenschaft und Philologie vornahmen.

Entsprechend einem Grundprinzip der Naturwissenschaft schließt sich die sprach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smethode eng an die Naturwissenschaften an und der Darwinismus wurde unmittelbar auf die sprachlichen Verhältnissen übertragen. Zugleich wurden die empirischen Regelmäßigkeiten der Sprachentwicklung zu Gesetzen im Sinne der Naturwissenschaft umgedeutet. Die zunehmende Orientierung der Sprachwissenschaft an der Naturwissenschaft zeigte sich am deutlichsten darin, daß Schleicher eine Analogie zu natürlichen Organismen auch in der Fähigkeit der Sprache zur Evolution sah. Bei Schlegel und Grimm wurde der zentrale Begriff des Sprachorganismus noch als Analogie gebraucht. Aber was bei ihnen als Modell verstanden

wurde, wird von deren Nachfolgern in den Gegenstand selbst hineinprojiziert.

Eine Höhepunkt dieser Auffassung war mit Schleicher erreicht. Aber durch diese naturwissenschaftliche Richtung wurde der Einfluß der Sprachbenutzer auf die Sprachentwicklung eliminiert. Die Junggrammatiker betrachteten es als ihre Aufgabe, die naturwissenschaftliche Methode der sprachlichen Forschung auf dem diachronischen Gebiet zu präzisieren.

Im Unterschied zu den naturwissenschaftlichen Gegenständen sind die Kulturprodukte durch die Wirksamkeit psychischer Faktoren bestimmt. Der psycho-physische Doppelcharakter der Sprache macht sie zum Gegenstand der Psychologie sowie Naturwissenschaft. In der weiteren Entwicklung der Ideen Humboldts entstand in der Mitte des 19. Jhs. eine psychologische Konzeption in der Sprachwissenschaft.

Unter Psychologie der Sprache wird die Analyse der psychischen Prozeße, die mit den Sprechakten verbunden sind, verstanden. Aber darunter wird es auch das Studium der psychologischen Gesetzmäßigkeiten verstanden, die bei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eines Sprachsystems wirksam sind. Unter dem Einfluß der Psychologie wird eine Hinwendung zu geistes- und sozialwissenschaftlichen Untersuchungsmethoden in der Sprachwissenschaft wirksam. So wurde anstelle der physischen die psychologischen Mechanismen der Sprachentwicklung herausgearbeitet und die Sprachentwicklung wurde wieder mit dem kommunikativen Bedürfnissen der Sprachnutzer in Zusammenhang gebracht. Die Höhepunkt der psychologischen Auffassung der Sprache war in der junggrammatischen Etappe erreicht.

Das Hauptziel dieser Arbeit liegt in der kritischen Analyse der Theoriebildung und Untersuchungsmethodik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Der Autor hat sich dabei besonders bemüht, durch die systematische Beschreibung der theoretischen Besonderheiten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und ihres historischen Hintergrundes aufzuzeigen, in welchem Zusammenhang die Entstehung einer Wissenschaft mit der Hauptströmung in den philosophischen Gedanken der Zeit steht.